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초등학교 미술 감상 지도 방법에 관한 연구  
- 4학년을 중심으로 -

Study on the Instructive Methods  
of Appreciating Art for Elementary School  
- Focused on the fourth graders -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미술교육전공

고 속 경

2009년 2월

석사학위논문

초등학교 미술 감상 지도 방법에 관한 연구  
- 4학년을 중심으로 -

Study on the Instructive Methods  
of Appreciating Art for Elementary School  
- Focused on the fourth graders -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미술교육전공

고 속 경

2009년 2월

- 2 -

초등학교 미술 감상 지도 방법에 관한 연구

- 4학년을 중심으로 -

Study on the Instructive Methods  
of Appreciating Art for Elementary School

- Focused on the fourth graders -

지도교수 임 춘 배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미술교육전공

고 속 경

2008년 11월

고속경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08년 12월



# 목 차

국문 초록 .....	iv
<b>I. 서론 .....</b>	<b>1</b>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3
3. 연구의 제한점 .....	3
<b>II. 미술 감상 및 비평의 이해 .....</b>	<b>4</b>
1. 미술 감상의 이해 .....	4
2. 미술 비평의 이해 .....	18
<b>III. 미술 감상 지도방법 연구 .....</b>	<b>24</b>
1. 미술 감상 지도의 방법 .....	24
2. 미술 감상 교수 학습 모형 .....	29
3. 미술 감상 교수 학습 자료 개발 절차 .....	38
<b>IV. 초등학교 4학년 교육과정의 이해 .....</b>	<b>39</b>
1. 제7차 교육과정의 성격 .....	39
2. 제7차 초등학교 미술과 교육과정의 내용 .....	40
3. 제7차 교육과정 4학년 미술 감상 영역 분석 .....	42
<b>V. 미술 감상 교수 학습 자료 개발의 실제 .....</b>	<b>51</b>
1. 1단원 교수 학습 자료 개발 .....	52
2. 2단원 교수 학습 자료 개발 .....	60
3. 3단원 교수 학습 자료 개발 .....	66
4. 4단원 교수 학습 자료 개발 .....	70

VI. 결론 및 제언 .....	75
참고 문헌 .....	78
ABSTRACT .....	80





## 표 목 차

<표 Ⅲ-1> 탐구 수업모형 적용계획 .....	35
<표 Ⅲ-2> 토의 수업모형 적용계획 .....	35
<표 Ⅲ-3> 창의적 사고 수업모형 적용계획 .....	36
<표 Ⅲ-4> 경험 수업모형 적용계획 .....	36
<표 Ⅲ-4> 개념 수업모형 적용계획 .....	37
<표 Ⅳ-1> 초등학교 내용체계 .....	40
<표 Ⅳ-2> 각 단원의 목표 .....	42
<표 Ⅳ-3> 교과서 감상 작품 .....	44
<표 Ⅴ-1> 1단원 교수 학습 과정안 .....	57
<표 Ⅴ-2> 1단원 감상학습지 .....	58
<표 Ⅴ-3> 1단원 감상학습지 .....	59
<표 Ⅴ-4> 2단원 교수 학습 과정안 .....	64
<표 Ⅴ-5> 2단원 감상학습지 .....	65
<표 Ⅴ-6> 3단원 교수 학습 과정안 .....	68
<표 Ⅴ-7> 3단원 감상학습지 .....	69
<표 Ⅴ-8> 4단원 교수 학습 과정안 .....	73
<표 Ⅴ-9> 4단원 감상학습지 .....	74

## 국문 초록

### 초등학교 미술 감상 지도 방법에 관한 연구 - 초등학교 4학년을 중심으로 -

고 숙 경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미술교육전공  
지도교수 임 춘 배

미술 교과 교육은 다양한 미술 활동을 통하여 주변 세계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향유할 수 있는 심미적인 태도와 상상력, 창의성 비판적인 사고력을 길러 주고, 아울러 미술 문화를 이해하며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전인적 인간을 육성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의 목표가 제대로 달성되기 위해서는 미술교과의 각 영역인 ‘미적 체험’, ‘표현’, ‘감상’ 세 영역이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중요하게 지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미적 체험’과 ‘감상’ 영역은 도외시하고 ‘표현’ 영역에만 과도하게 치우쳐 지도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감상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감상목표와 학생수준에 맞는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가 필요하다. 그러한 교수·학습 자료를 통한 질 높은 감상 활동은 학생들은 감상 능력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대상의 아름다움을 지각하고 반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학생들의 감상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문헌연구를 통해 효과적인 학습방법을 모색하고 감상활동에 중점을 둔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으며 교수 학습 자료는 4학년 미술교과서의 참고 작품을 활용하여 지도안과 감상학습지로 개발하였다.

교수 학습 자료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감상 지도의 목표와 관점을 설정하고 그에 맞는 작품의 선정, 작품과 작가에 대한 연구, 구체적인 내용 작성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와 같은 과정을 거쳐 개발한 교수 학습 자료를 수업시간에 투입한다면 ‘감상’ 영역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높이며 수업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 또한 ‘표현’ 영역의 과도한 편중 현상을 줄이고 ‘감상’ 영역에 대한 충실한 수업을 유도함으로써 아동의 감상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

미술 감상지도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앞으로 미술 감상 지도 방법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확대되고 교과서 및 지도서의 내용 보강 그리고 학년 수준에 맞는 다양한 교수 학습 자료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 7차 교육 과정에 제시된 미술과의 성격을 보면 미술 교과 교육은 다양한 미술 활동을 통하여 주변 세계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향유할 수 있는 심미적인 태도와 상상력, 창의성 비판적인 사고력을 길러 주고, 아울러 미술 문화를 이해하며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전인적 인간을 육성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초등학교에서의 미술과 교육은 미술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따라서 미적인 안목을 키우고 미술품을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미술 문화에 대한 이해와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미적 경험을 제공하는 학습에 중점을 두고 있다

미술교육학자들의 견해와 구성주의 관점에서 보면, 미술교육의 목표는 첫째, 능동적이고 자율적으로 미적 경험을 구성하여 미적 안목의 육성을 도모하고, 둘째, 새로운 미적 지식과 정보를 획득하고 재구성하여 미술문화를 이해하고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미적 고등정신기능을 기르며 셋째, 각자가 가진 개성이나 창의적인 능력 등이 미술환경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최대한 발현되게 하고 넷째, 미적 감수성의 함양을 통하여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하는 데 있다(류재만,2004).

이러한 교육과정의 목표가 제대로 달성되기 위해서는 미술교과의 각 영역인 ‘미적 체험’, ‘표현’, ‘감상’ 세 영역이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중요하게 지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미적 체험’과 ‘감상’ 영역은 도외시하고 ‘표현’ 영역에만 과도하게 치우쳐 지도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관련된 선행연구 김진희(2002)에 의하면 초등학교 미술 수업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교사 12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미술목표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으로 저학년 담임과 고학년 담임 모두 ‘창의적인 자기 표현’으로 대답하였으며 저학년 담임임 경우 90%, 고학년 담임인 경우는 50%로 응답하였다. 반면에 ‘미적 감상 태도의 향상’에 대해서는 저학년 담임인 경우

3.3%, 고학년 담임인 경우는 13.3%에 그치고 있다.

또한 황희재(2001)에 의하면 미술감상 지도에 있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여부 대한 조사 결과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는 응답자의 4.0%밖에 되지 않았다. 대체적인 지도관점을 계획한다는 교사가 52%였으며 감상지도 내용을 계획하지 않는 교사도 44.0%나 되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감상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관심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과 실제 감상지도가 계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류재만(2004)은 실제적으로 미술교육에 있어서 감상교육이 제대로 자리 매김 되지 않고 있으며 그 까닭은 다음과 같은 요인들에 기인한다고 밝히고 있다.

첫째, 교사들의 미술감상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감상 지도의 방법을 가르치기 위한 자질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들 수 있다.

둘째, 감상 지도에 필요한 자료가 부족하다.

셋째, 미술감상 수업이 작품이 작품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고 감상자는 암기하는 식의 지나친 지식위주의 감상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감상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감상 내용을 효과적으로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자료들이 필요하다. 그러나 교사들이 가장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자료라고 할 수 있는 교과서와 지도서를 교수·학습 자료로 이용하기에는 부족함이 많다.

감상지도에 앞서 교사는 감상 작품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이를 어떤 관점에서 감상하게 할 것이며 어떤 방법으로 감상학습이 되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고민하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그러나 현행 교과서와 지도서는 감상작품에 대한 단편적인 설명만 제시되고 있으며 감상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예나 지도방법이 충분히 제시되지 못하고 있어 감상 지도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감상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감상목표와 학생수준에 맞는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가 필요하다. 그러한 교수·학습 자료를 통한 질 높은 감상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은 감상 능력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대상의 아름다움을 지각하고 반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학생들의 감상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문헌연구를 통해 효과적인 학습방법을 모색하고 감상활동에 중점을 둔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방법은 문헌 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술 감상의 개념 및 내용과 아동의 감상 능력 발달에 대한 특징을 살펴 감상교육의 중요성과 아동 수준에 맞는 감상 지도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였다.

둘째, 미술비평의 개념과 의의를 살피고 감상과 비평과의 차이점을 알아보고 감상과 비평의 관계를 정리하였다.

셋째, 여러 가지 미술 감상 지도 방법과 감상 지도 수업 모형을 정리하여 실제 자료개발의 토대가 되도록 하였으며 초등학교 4학년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교수 자료 개발 단원을 추출하였다.

넷째, 감상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여러 가지 교수학습 감상 지도 방법 및 감상 지도 수업 모형을 활용하여 4학년 수준에 적합한 다양한 교수 학습 자료를 개발하였다.

## 3. 연구의 제한점

이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교수 학습 개발은 본 연구자가 현재 가르치고 있는 4학년으로 제한하고, 단원은 4학년 1학기에 해당하는 단원 중 감상학습에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1, 2, 3, 4단원에 제한한다.

둘째, 감상 작품은 미술교과서에 제시된 감상작품으로 제한하였다..

셋째, 교수 학습 자료 개발은 교과서에 제시된 감상 작품을 중심으로 문헌 연구를 통해 정리한 감상지도법과 수업모형을 활용하여 지도안과 감상학습지로 개발하였다.

## II. 미술 감상 및 비평의 이해

### 1. 미술 감상의 이해

#### 가. 감상의 개념

개념과 관련된 한 견해(류재만, 2004)에 의하면 예술작품의 주된 구성 요소는 형식과 내용이다. '감상'은 일반적으로 예술작품의 감각적인 형식과 정신적인 내용을 맛보고 즐기는 미적 체험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세계미술사전에서는 예술작품의 감각적 형식과 표현 내용에서 미를 향수하지만 단지 지적·분석적 이해와 개인적인 '좋고 싫음'의 정서적 반응과는 구별하여 관조와는 달리 작품을 적극적으로 음미하는 평가 활동이 가해지는 것이라 하였다. 또한 철학사전에는 '감상'이라는 용어는 주로 예술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관조'와 혼동하기 쉬우나 엄밀히 말하면 관조보다는 가치 판단상의 '감정(鑑定)'과 '비판'이라는 성향이 강하다. 이런 의미에서 감상은 '예술비평'의 바탕이 되는 것이라 하였다. 이와 같이 관조가 충실한 '수용'인데 비하여 감상은 '향수'란 의미를 넘어 '가치 인식'과 '가치 판단'이라는 보다 적극적인 작용을 내포하고 있는 미적 향수 활동인 것이다.

#### 나. 감상의 교육적 의의

감상의 교육적 의의에 대하여 박휘락(2003)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전통적인 미술교육에서 감상교육은 '정서함양'이나 '고상한 취미의 형성' 등 교양 교육 정도로 그 의의를 규정하였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보다 예술 본질적인 입장에서 '미술 지적 능력의 육성'이나 혹은 '시각세계에 대한 안목의 함양', 또는 직접적 '조형적 모순을 아는 능력의 육성'이라든지 '예술작품의 지닌 언어를 이해하고 읽는 능력의 양성' 등 다양한 이론으로 감상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그 의미를 주장하게 되었다. 오늘날 감상교육의 의의는 어느 정도 부각되고 이해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술감상은 인간의 정서와 사상을 형성하는 '자기 창조'의 교육이다.

감상은 예술작품의 감각적, 현상적 층인 '전경'을 통하여 작가의 정신적 세계로

서의 가치적응인 ‘후경’에 깊숙하게 들어가 작가의 사상 세계와 만나 대화하는 활동이다. 그리하여 감동하며, 인간적 가치와 진실을 교감하고, 작가의 혼신이 담겨 있는 가치 세계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

둘째, 미술감상은 인간의 감성을 풍부히 하는 교육이다.

감성은 대상으로부터 감각된 자극은 자기에게 의미를 갖게 하고 정보로서 가치지움과 함께 표현과 감상의 정서로서 자기 내부에 형성되어지는 것이다. 미술 작품에 대한 감상은 자신의 감성에 의하여 대상이 지닌 좋은 점과 미적인 요소를 감수하고 나아가 작품을 분석과 해석을 가하여 미적 가치를 이해하고 비판하고 자기화하는 과정이다.

셋째, 미술감상은 시각 매체에 대한 인식과 창조능력을 기르는 교육이다.

이제까지 ‘감상’이라고 하면 주로 미술품이나 자연미에 대한 지도를 하는 것이 주된 활동이었다. 그러나 감상교육의 대상이 순수 미술작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이 보다 확대되어야 할 상황에 와 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정보를 바르게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만 삶을 주체적으로 영위해 나갈 수 있다.

넷째, 감상은 미술 문화에 대한 이해와 새로운 문화 창조의 능력을 기르는 교육이다.

감상은 미술을 ‘이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보존’하며, ‘창조’하는 데까지 발전하여야 한다. 미술작품의 감상을 통해 이제까지 예술가들이 이룩해 놓은 문화유산의 배경을 이해하고 아끼며, 이를 계승하고 새로운 미술문화를 창조하고 발전시키는 데 관심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섯째, 미술감상은 다양한 세계 문화를 이해하도록 하는 교육이다.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는 시대와 풍토성, 그리고 민족성과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다문화 미술교육은 이러한 다원적인 문화적 특성을 이해시키려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으며 문화적 상대성을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각자 문화의 귀중함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국제성을 기르는 데에 중점이 놓여져야 한다.

여섯째, 미술감상은 다양한 인간상의 이해와 삶의 방식을 자각하게 하는 교육이다.

예술작품은 예술가의 사상과 삶에 대한 방식을 표현해 놓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작품을 감상하면서 작품의 감각적·사상적인 면에서 아름다움을 발견



하고 감동하며 인간을 보다 폭넓고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된다.

일곱째, 미술감상은 표현의 동기를 낳으며, 창작과 향수의 길을 심화시키는 교육이다.

감상과 표현은 본래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상호 상승 작용의 효과성을 가진다. 때문에 학교의 감상교육은 표현활동과 밀접한 관계를 갖도록 유의시키고 있다.

#### 다. 미술 감상교육의 내용구성

노부자(2002)는 미술 감상교육의 내용 구성에 관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미술교육은 과거의 만들거나 그리기 표현활동 중심에서 이해와 감상의 측면도 균형 있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에서 더 나아가 단순한 이해와 감상활동을 넘어서는 좀 더 구체화된 내용구성으로 제시되고 있다. 가령 과거에 미술의 이해나 감상활동 교육이 작품을 중심으로 이해되고 가르쳐졌다면, 근래에 제시되고 있는 미술교육에서의 감상교육은 ‘미술이해에 기초한 총체적 미술교육(DBAE-Discipline Based Art Education) 교육 사상이 이를 대표한다.

이 사상은 미술작품을 보고 이해하며 감상하는 단순한 활동에서 더 확대된 개념이다. 즉 미술사나 미학의 이해적 측면이 고려되어 그 작품의 문화적, 역사적 배경을 이해할 것을 권장한다. 또한 작품분석과 의미 해석을 통해 미술작품의 가치나 평가를 할 수 있는 미술비평이 균형 있게 교과내용에 포함되도록 구성되었다.

학생들이 첨단 기술 산업사회에서 적응하며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예술이 전달하는 의미와 미에 대한 이해 없이는 균형 잡힌 삶을 살아나가기 힘들다. 왜냐하면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미술의 문화적, 역사적 맥락을 배제할 수 없으며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시각 형태들을 이해하며 의미를 분석하고 가치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미술언어의 소통방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교통신호의 색이나 공공적인 삶 속에서의 의미소통을 위한 심벌마크나 로고, 머리 모양, 신발, 옷 등의 취향과 선택 등이 모두 미술의 이해적, 감상적 측면이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학교교육에서의 시각예술교육 프로그램 내용구성을 미술의 제작과 더불어 미술사, 미술비평, 미학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DBAE이론의 주장은

많은 미술교육자들에 의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들 내용구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 1) 미술의 제작

미술제작이란 창조의 한 과정으로서 미술의 임무는 우리의 경험을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으로 나타내는 방법 중에서 시각언어 말고 다른 방법에 의해서는 표현될 수 없는 경험을 표현하게 해주는 것이다. 미술제작은 자신이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며 지각하는가에 대해 명확히 보여줄 수 있는 각자 개인 나름대로의 특이한 표현방법과 능력 및 기술을 필요로 하게 된다.

미술제작을 위한 학습활동에서는 잘 알려진 작가의 미술작품을 보여주며 비슷한 주제나 감정, 범세계적 주제, 또는 비슷한 화풍이나 표현매체 등에 공통점을 찾아내도록 하여 그들의 제작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미 있는 연관성을 찾게 한다.

#### 2) 미적 지각활동

미술활동이란 인간이 자연환경과 인간세계에서 사물을 바라보고 지각하며 인지한 경험들 속에서 미술적 요소를 깨닫고 분별하여 이를 시각 형태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하여 사물의 이치를 발견하고 판단하거나 미술작품의 가치를 평가하는 이 모든 행동은 '바라보는 능력'에 기초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미술교과의 특성이 사물을 새롭게 보고 알게 해주는 미술적 관찰방법을 가르치는 것이므로, 선별적으로 또는 변별력 있게 바라보고 선택할 수 있는 지각능력에 대한 습득이야말로 모든 학습의 기초를 이룬다. 그러나 이같이 '바라보는 방법'으로서의 미적 지각능력은 학생들 자신이 스스로 터득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미술학습 훈련이라는 가르침의 활동을 통해 시지각의 발달을 도모하게 된다. 왜냐하면 미술작품의 표현적 특질을 깨닫거나 미술작업에서의 주제에 대해 미적 반응을 한다거나 주위환경에 대한 미적 경지에 관해서 호기심을 갖는 것 등의 미술활동에 의미를 부여하는 미적 지각활동이라 자동적으로 얻어지는 능력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예컨대 자연을 혹은 미술품을 대하는 경우, 이에 대한 간단한 질문을 던지거나 토론을 통하여 그들의 지적인 사고와 바라보는 방법을 확장시킬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한 나무를 질문의 주제로 택할 경우 왜, 어떻게 그 대상에 대해

반응하는가에 대한 일반적인 물음으로부터 시작하여, 위에서 내려다 본 것과 아래서 올려다 본 것, 크고 작음의 관계, 굵고 가늘음, 거칠고 부드러움, 곡선과 직선, 앞과 뒤 등과 같은 미술적 질문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또 ‘바라보는 방법’이 발전함에 따라 사물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지각방법과 특별한 관계성에 대한 깨달음이 생겨 서로 겹쳐진 형태라던가 밝은 색과 어두운 색의 대비, 예리하고 둔한 관계성 등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게 된다.

이 같은 질문이나 토론은 그림을 그리기 이전에 동기유발을 위한 질문이거나 혹은 작품을 완성한 후에 갖는 평가적인 응답이거나를 막론하고 그 내용이나 개념은 극히 단순한 것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같은 ‘바라보는 시지각’의 발달은 학생이 속해 있는 실제의 세계와 자신들을 연결시키고 이에 반응하게 만들며, 시각적 이미지의 측면에서 이를 바라보고 사고하게 만들어 그들의 상상력을 키워준다.

미술활동에서의 이 같은 미적 추구는 특정한 미술작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 주변 환경에 대한 미적 지각능력을 발달하게 하여 이를 명백히 관찰하고 인지할 수 있는 인식능력을 증가시킨다.

### 3) 미술문화유산

미술은 역사 이래로 인간에 의해 그 가치를 부여받았다. 예를 들어 원시문화만 하더라도 미술은 그들 부족사회의 일상생활과 분리될 수 없는 관계를 지녔음을 볼 수 있다. 미술가들은 그들을 둘러싼 세계와 사건들로부터 영향을 받고, 미술작품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 작품이 만들어진 어떤 특정한 시대나 문화적 배경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미술작품을 감상하고 미술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술작품이 지니는 문화적, 역사적 맥락 속에서의 미술적 의미를 관찰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들은 또한 다른 미술가들의 활동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거나 우리들 이전의 것들로부터도 영향을 받으며 한편으로는 우리들 이후에 오는 세대들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것이다.

미술작품이 지니는 이 같은 문화적, 역사적 맥락 속에서의 미술적 의미를 관찰하며 미술작품을 감상하고 토의한다는 것은 현대와 과거의 문화권 속에서 미술이 맡아온 여러 가지 역할이나 사회적 필요성을 고찰하는 것이다. 이들 미술작품의 상징적 표현체계들은 크게 보아 어떤 공통적인 특성을 지니면서도 나름대

로의 특정한 양식이나 화풍을 만들어낸다. 이 같은 개인적, 지역적, 연대학적 양식들에 관한 분류나 분석연구 등은 같은 시대적 배경이나 문화적 환경 속에서 만들어진 다른 여러 형태의 미술작품이나 미술가들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깊게 한다.

물론 미술학습에서 저학년일 경우 고학년에서나 다룰 수 있는 미술 역사의 구체적인 연대나 날짜, 혹은 미술의 연계성 등에 대한 깊은 이해를 기대하지는 않는다. 그보다는 미술이 각 시대를 통하여 문화에 어떻게 반영되고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가, 또는 미술이 기여하는 서로 다른 목적이나 역할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등에 초점을 맞춘다. 예를 들어 저학년의 경우 미술작품을 주제별로 그룹지어 보여주고 단순히 작품의 주제에서 공통점을 찾게 한다거나, 각기 다른 연대의 매우 다른 화풍의 초상화 그림을 보여줌으로써 표현양식의 다양성을 일깨워 준다. 어떤 미술가들은 사실적, 재현적 표현 방법을 즐겨 사용하며 다른 화가들은 사물의 특성이나 개성을 과장하고 강조하여 나타내고자 하며, 또 다른 작가들은 상상적 이미지를 즐겨 사용하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선·색·형태 등만을 강조하여 이를 즐겨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4) 미술의 비평과 평가

일상적으로 우리는 늘 시각적 이미지들을 대하고 있으며,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각적 환경 및 미술작품의 의미나 가치, 중요성에 대해 판단을 내리고 선택을 해야 하는 기회에 부딪힌다. 그러나 이 같은 시각적 환경이나 미술작품에 대한 미적 평가나 판단 혹은 선택이나 결정 등은 이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이다. 아이스너는 미적 평가란 단순히 개인이 선택하는 좋아함이나 좋아하지 않음, 인정과 부정, 혹은 개인적인 중요성이나 의미심장함과 같은 것에 대한 단순한 서술이 아니라 무엇이 미술적으로 뛰어났는가에 대한 평가와 판단을 할 수 있는 어떤 타당성을 기초로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아이스너, 1988).

이렇게 볼 때 미술비평이란 우리들로 하여금 특별한 방법으로 시각적 세계를 바라보고 이를 서술하며 판단을 내리는 방법을 제시해 줌으로써 우리가 속한 시각적 세계나 미술작품에 대해 명상적이며 숙고적인 시간과 지각기술을 바라보고 판단하게 해준다. 그러나 이 같은 이해력이나 비판능력은 단계적 학습훈련

을 통한 배움의 과정을 통하여야 습득될 수 있다고 많은 미술 교육자들은 주장하다(미틀러, 1988; 펠드만, 1970).

예컨대 저학년의 '특별한 방법으로 시각적 이미지를 보고 서술하여 평가하는 방법'의 학습을 생각해보자. 우선 학생들은 미술작품에서 그들이 무엇을 보았는가에 대해 간단히 서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다. 그들은 곧 어떤 화가는 두꺼운 물감과 곡선적 붓 필치를 사용했다거나 물감칠을 넓고 얇게 했는가 등에 대한 표면적 설명 단계를 거치게 된다. 이어서 이들은 미술작품을 이루고 있는 색·선·형태/모양·질감·명암·공간 등 작품을 이루고 있는 요소들을 찾아낼 수 있는가 하는 미술의 지적 감상활동을 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어떤 재료나 또는 매체를 사용하여 어떻게 표현했는가를 살펴보면, 미술작품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며 그들의 시선이 어떻게 이 같은 초점으로 이끌어 냈는가를 생각할 수 있게 된다.

작가가 어떻게 밝은 곳과 어두운 곳을 구별했는가, 형태를 반복함으로써 어떤 문양을 만들어 내고 있으며 조화롭고 완성된 느낌, 혹은 변화나 통일된 느낌을 주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가를 찾아보게 된다. 학생들도 이 같은 서술적 설명 단계와 분석적 자료를 근거로 하여 어떤 의미와 느낌을 지닌 미술품인가 그들 나름대로의 느낌이나 감정을 가지고 미술작품에 대해 반응할 수 있게 된다.

#### 라. 미술 감상의 평가

감상에서는 감상에 관련된 지식, 이해에 대한 적용, 작품에 대한 분석 능력, 판단 능력,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이며 설득력 있게 발표하는 능력, 수업 태도 및 발표하는 태도,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는 태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교육인적자원부, 2005).

##### 1) 서술형 및 논술형 검사법

서술형 검사법은 문제의 답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이 직접 서술하는 평가이다. 미술에 관한 이해, 재료나 용구, 조형요소나 원리, 제작 방법, 미술사 등 관련 지식이나 이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데 활용 가능하다.

논술형 검사법은 일종의 서술형 검사법이기는 하지만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을

논리적으로 작성해야 함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서술형 검사법과는 차이가 있다.

## 2) 연구 보고서법

연구보고서법이란 각 교과별로나 통합교과적으로 여러 가지 연구 주제 중에서 학생의 능력이나 흥미에 적합한 주제를 선택하되, 그 주제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종합하여 연구보고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여 평가하는 것이다. 이 때 연구 주제나 범위에 따라 개인적으로 할 수도 있고, 관심 있는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단체로 할 수도 있다.

미술교과에서 연구보고서법의 활용은 학습목표에 따라서 학생의 관심이나 흥미에 맞는 주제를 선택하고, 그 주제에 관련된 자료를 수입하여 분석하고 종합하여 연구보고서를 작성하게 하는 평가 방법이다. 미술이해나 감상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다.

연구보고서법의 평가관점은 연구보고서에서 자료수집능력, 보고서 작성 체계, 보고서 발표 및 태도에서 발표력, 발표·경청 태도 등을 관점으로 한다.

## 3) 자기 평가 및 동료 평가 보고서법

자기평가보고서법이란 특정 주제나 교수-학습 영역에 대하여 자기 스스로 학습과정이나 학습결과에 대한 자세한 평가보고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여 평가하는 것이다. 자기 스스로의 학습과정이나 학습결과에 대해 평가보고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학습자로 하여금 자신의 준비도, 학습동기, 성실성, 만족도, 다른 학습자들과의 관계, 성취수준 등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고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교사로 하여금 교사가 시행한 해당 학습자에 대한 관찰이나 수시로 시행한 평가가 타당하였는지를 비교·분석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이와 유사한 동료 평가 보고서법은 동료 학생들이 상대방을 서로 평가하도록 하여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 교사가 이를 평가에 활용하는 평가 방법이다. 동료 평가는 학생 상호간에 작품을 평가해 보는 방법으로 지도성, 의도성이 없는 것이 특색이다.

## 마. 아동의 미술표현 발달과 감상 능력 발달

### 1) 아동 미술표현의 발달

E. W. 아이스너(1995)는 아동의 미술표현 발달에 관한 일반적인 사실을 다음

과 같이 밝히고 있다.

· 어린이 미술에서 발견되는 특성은 어린이의 연령단계에 따라 변한다.

수년 동안 면밀히 관찰되어 왔고 부모와 교사의 의해 분명히 관찰된 바에 의하면 어린이가 그들의 작품에 사용하는 시각적 기법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어느 정도 체계적인 방식으로 변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미 지적한 것처럼 이 관찰은 이러한 변화가 '자연스럽게' 일어나기 때문에 어린이 미술작품의 자연스러운 발달이나 진전은 정상적인 것이며 그래서 좋은 것으로 간주되었다. 미술표현의 발달은 어린이가 재료를 가지고 그의 이미지나 생각, 감정을 형식화하는 문제에 잘 대처하기 위해서 어린이가 배우거나 스스로 익히는 기법 등과 같은 학습 유형으로 생각되었다. 마음대로 그리게 했을 때 다양한 연령층에 있는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사한 기법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 어린이 미술에서 복잡성의 정도는 어린이가 성숙함에 따라 증가한다.

이런 관찰은 어린이의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지각과 제작 면에서 배열하는 기법이 향상되는 것을 말한다. 이런 기법의 발달에 따라 어린이는 보다 넓게 특성을 배열할 수 있게 되고 자신의 미술작품에 보다 포괄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된다. 취학 전 어린이의 미술형태는 종종 생각을 전달하거나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그림은 어린이가 의도하는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 복잡해져야 한다. 성숙함에 따라 의도가 단지 생각을 표현하기를 원하는 것으로부터 이러한 생각을 전달하는 형식이 세상의 모습을 충분히 묘사하는 방법에 의해 표현하는 것으로 확대된다. 이런 변화가 일어날 때 강조점은 그림 문자처럼 상징적인 것에서 사실적인 표현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다.

· 어린이가 성숙함에 따라 표현에서 전체적인 구성력에 대한 감각이 향상된다.

재료를 사용하여 어떤 미술적인 의도를 나타내고자 할 때 직면하게 되는 문제 중에 하나는 시각적으로 결합된 형태를 하나의 전체로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표현한 형태들로 인해 만들어진 형태들 간의 관련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개개의 형태는 그것이 차지하는 배경과의 관련 속에서 지각되는 것이다. 어린이의 지각이 보다 사실적으로 볼 수 있게 되면서 어린이들의 지각 분석력은 확대되고, 부분들 간의 관계에 대해 생각하는 능력도

발달하게 된다. 어린이들의 이러한 능력을 갖추게 되면서 작품은 더욱더 통일감을 갖게 된다.

- 어린이들은 평면표현에서나 입체표현에서 자신들에게 의미 있는 형태를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

어린이의 작품을 분석해 보면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형태를 크게 하거나 색채를 강렬하게 함으로써 과장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아마 중요하게 여기고 정서적으로 비중 있는 대상이나 생각을 먼저 그리기 때문인 것 같다. 그리고 작품의 전체적이고 표현적인 미적 특성이나 형태들의 관련성에 대한 관심은 다소 늦게 발달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 4~8살의 어린이들은 상징성이 강한 표현을 주로 하며 점차 사실적인 표현에 관심을 갖게 된다.

4, 5살의 어린이는 일반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전하는 데 필요한 만큼의 세부 묘사한다. 그러나 어린이의 지각과 표현기능이 발달하면서 사실적인 표현에 흥미를 갖는다. 그러나 8살부터 10살의 어린이는 재료를 가지고 어떤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할 때 자신의 표현기능이 부족함에 불만을 갖게 된다. 유치원 어린이에게는 이러한 불만이 보이지 않는다. 이는 어린이들이 인물의 실제 모습과 자신들의 그림에서 차이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림에서 의도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이다.

- 어린이들이 표현해 낼 수 있는 형태의 양식은 나이와 관련되어 있다.

예를 들면 원은 사각형보다 먼저 나타나고 사각형은 마름모보다 먼저 나타난다. 어린이가 복잡한 형태를 그리기 전에 단순한 형태를 그리는 현상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은 복잡한 이미지를 표현하는 기능을 얻으려면 경험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어린이 그림에 나타나는 분화의 정도는 그들의 개념 성숙과 관련되어 있다.

이런 사실은 지능검사를 고안하려고 노력한 구디너프와 해리스의 연구에서 많이 구체화되었다. 구디너프에 의해 고안되고 해리스에 의해 개량된 ‘인물화 검사’는 어린이 그림 속에 나타난 세부 묘사의 정도가 그의 개념 형성 정도를 나타낸다는 전제에 기초한다. 이 주장의 정당성은 어린이의 ‘인물화 검사’에서 얻는 점수와 표준 지능검사 점수의 상관성에 의해 입증되었다.



· 어린이의 드로잉과 페인팅은 서로 다른 의도에 의한 것이다.

선으로 그린 그림은 생각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고 색채에 의한 그림은 느낌의 표현이다. 어린이는 연필이나 단색의 크레용보다 색채의 사용을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연구에 의하면 통제적이고 계획적 특성을 지닌 연필이나 크레용으로 드로잉하는 것보다 유동적이고 생생한 특성을 지닌 색채가 정서적 반응을 더욱 불러일으킨다고 한다. 따라서 어린이의 인성에 대한 통찰을 얻고자 할 때, 감정과 관련된 인성의 측면은 드로잉보다 색채 표현을 관찰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 어린이가 사용하는 형태, 색채, 구성은 그들의 인성 및 사회적 발달과 관련되어 있다.

알슬러와 헤트윅은 어린이가 사용하는 형태나 색채, 구성이 우연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과 주변에 대한 감정의 표현이라고 지적한다.

· 서로 다른 문화 속에 살더라도 어린이, 특히 유치원 단계 어린이들이 창조하는 시각 형태는 매우 유사하다

그 유사성은 어린이가 성장하면서 줄어드는 게 일반적인 사실이다. 어린이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차이가 클수록 아동화에 나타나는 차이도 증가한다. 이러한 연구는 미술학습에서 환경의 영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

어린이에게 문화적 영향이 미침에 따라 언어, 신념 체계, 미적 선호를 포함한 인간의 행동 특성도 변한다. 결국 개별적으로 접촉하는 환경에 의해 그들의 인성 역시 달라진다는 것이다.

· 학령기 어린이에게 있어서 가장 일반적인 주제는 인물이다.

아동화의 주제 분포를 살펴보면 인물이 가장 일반적이다. 어린이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그린다고 추정해 볼 때 인물을 그린다는 사실은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 어린이들의 시각이 점점 세련되고 친숙하지 않은 시각 형태에서도 의미를 찾게 되면서 작품의 내용도 변화한다. 그래서 어린이들은 인물에 관심을 두다가 시각적 풍경에 흥미를 두게 되고 그것들을 표현할 만한 기능을 습득하게 되면 인물표현은 줄어들고 점차 풍경이 등장한다.

· 아이들은 그림을 그릴 때, 모델이나 정물이 바로 앞에 있더라도 무시하고 표현하는 경향이 강하다.

어린이는 정물을 그릴 때 앞에 놓인 정물의 시각 형태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실적으로 그리려는 욕구보다 상징이나 도식을 먼저 그리려 한다는 아동화이론을 뒷받침한다.

· 드로잉 하는 능력은 청소년기에 정체되는 경향이 있다.

사춘기 이후의 그리기 능력은 특별한 가르침이나 자기 학습이 없을 경우 발달하지 않는다고 한다. 대학생은 비롯한 40대 어른의 그림과 14, 15살 학생의 그림을 섞어 놓으면 이 둘을 분리해 낸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리기 기능은 일상적인 경험의 자연스런 과정 속에서 발달한다. 그러한 경험이 제공하는 것 이상으로 발달하는 데는 집중적인 노력과 학습이 필요하다. 결국 대부분 성인의 미술기능은 14, 15살의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는 것이다.

·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는 형태의 배경이나 구성을 거의 생각하지 않고 오직 그려진 형태에만 집중한다.

어린이가 표현을 할 때, 어떤 형태가 다른 형태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경향을 말하고 있다. 분화된 시각이란 부분을 전체와의 관련 속에서 보는 능력으로, 그것은 복잡한 능력이다. 어린아이들은 특정한 부분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 미술표현의 기능 면에서 의미 있는 성적 차이는 발견되지 않는다.

초등학교 단계에서 보통 정도의 남녀 아동화의 수준이 거의 같다고 할 수 있으며 비록 남녀 어린이가 사용한 그림의 주제는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이지만 그 주제를 다루는 기능에서는 비슷하다.

표현기능의 영역에서 남녀 어린이의 성적 차이가 없다고 해서 미술에 대한 지식이나 태도에도 차이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대략 1학년부턴 여자는 남자보다 꾸준히 높은 점수를 얻는다고 한다.

· 어린이는 시각적으로 분명한 형태를 선호하며 그들의 성장단계와 발달단계와 관련된 것을 좋아한다.

초등학교 어린이에게 가장 좋은 그림을 선택하라고 할 경우 그들은 자신들이 그릴 수 있는 것보다 더 사실적인 그림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가장 사실적인 그림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림보다 약간 더 사실적인 그림을 좋아하는 것이다.

## 2) 아동 감상 능력의 발달

어린이들의 미적 인식이나 감상능력도 미술표현의 발달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과정을 거친다. 감상능력 발달단계를 롯친스는 3단계로, 가드너는 5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 가) 롯친스의 감상 능력 발달 단계

- 제1기(4-5세) 묘사 능력이 낮으며, 그리는 것보다는 보는 것에 흥미를 갖는다. 따라서 이 시기부터 가치 있는 그림책을 보여 주어 앞으로의 감상력의 기초가 되게 한다.

- 제2기(6-10세) 아동들의 풍부한 상상력에 의해서 자유분방하게 그리는 시기로써 그림을 보는 것보다는 자기 표현에 흥미를 갖는다. 그러므로 이 시기를 예술적 감상시기라 부른다.

- 제3기(11-15세) 묘사력이 침체하며 극작력(劇作力)이 발달한다. 그러나 이때의 아동들은 자기 표현 능력을 자각하며 평가능력이 발달하기 때문에 감상 교육을 유효하게 할 수 있다.

- 제4기(15세 이후) 정신 능력이 대단히 복잡하게 되며 예술적 창작의 경지에 들어갈 수 있는 시기이다. 이때에는 미적 평가력이 대단히 진보하며 참뜻의 감상 시기라고 할 수 있다.

### 나) 가드너(Gardner,1981)의 감상 능력 발달 단계

가드너는 학생의 감상능력 발달단계를 5단계로 제시하고 있다.

- 지각의 단계(0-2세)는 사물을 직접 지각하는 단계로 사물의 공간적 형태만을 구별하는 시기이다.

- 상징인식의 단계(2-7세)는 현존의 사물과 기호, 상징화된 사물과의 관계를 인식하며, 대상을 개념적으로 감상하는 시기이다. 이 단계에서는 사물에 대한 인식이 감정적이고 심리적인 충동에 따르게 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표현된 상징의 공식적, 즉각적인 지시성에만 얽매이기 쉽다.

- 사실적 단계(7-9세)는 조형적 대상을 받아들이는 데에 있어 묘사적 규칙과 전통적 개념을 중시하게 된다. 지각의 능력에 있어서도 엄격한 사실 지향적 관점을 지니기 때문에 자칫하면 사진과 같은 사실적인 작품을 매우 선호하고 존중하는 심리에 빠지기 쉽다. 따라서 환상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은 우습게 생각하

거나 경시하려 한다. 이 지각 단계에서 교사가 주의해야 할 점은 어린이들이 이러한 사실주의적 고정 관념에 고착되는 것을 막고 잠재하는 개성과 창의성을 흥미 있는 방법으로 격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 탈사실적 단계(9-13세)는 다양한 미적 특성에 관심을 가지고 미묘한 표현적인 성격, 진부하지 않은 좀 더 색다른 특성들을 지각하게 된다. 지금까지 주제에 대한 지배적인 관심 대신에 이 시기에는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하는 재료와 기법에도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타인의 개성도 인식하고 인정하며 예술작품들의 각기 다른 표현 양식에도 관심을 보이고 감수성도 예민해진다.

- 예술적 위기의 단계(청소년기)는 미술에 대한 관심이 전보다 떨어지면서 다른 활동으로 분산되고, 비판적인 인식과 환경에 대한 지각 능력이 높아짐에 따라 자신의 표현에 자신이 없어지고 다른 친구의 작품을 비판하려 한다. 이 시기는 개인의 성격 유형이 분화되는 시기로 감성적 특성보다 논리적인 특성이 우세한 시각형의 사람은 과학에 오히려 관심을 보이며, 감성적 특성이 두드러지는 촉각형인 학생들은 개성적인 예술에 몰입하기도 하는 단계이다.

이와 같은 가드너의 관점에서 비추어보면, 사실주의적 관점에 의한 감상 단계는 그림만이 아니라 모든 미적 대상에 대한 규칙과 전통적 개념을 고수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의 어린이는 표현 기능에 있어서는 아직도 상징적 표현의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지각의 능력에 있어서도 엄격한 사실 지향적 관점을 가진다. 환상적 상상적인 표현을 우습다고 여기거나 경시하려 한다. 이 지각 단계의 어린이들에게 이러한 사실주의적인 고정 개념을 깨고, 잠재하는 개성과 창의성을 흥미 있는 방법으로 고무하는 것이 바로 교사의 과제인 것이다.

사실주의적 관점에서 벗어나려는 감상의 단계는 고학년이나 중학년 단계에서 나타나는 지각·감상의 단계이다. 표현 기능에서는 사실주의에서 벗어나려 시도하는 것이 이 단계이다. 즉 지금까지는 어떤 표현된 상징의 공식적 즉각적인 지시성에만 얽매어 있었던데 반하여, 이제는 미묘한 표현적인 성격, 진부하지 않은 좀 더 색다른 특성들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그래서 ‘자기 나름’의 상징과 주제와 표현 방법을 추구하려고 하고, 통념적 고정적인 규칙을 깨뜨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시도하게 된다. 지금까지 무엇을 나타낸 것인가 하는 ‘주제’에 대한 관심은 이제는 어떻게 나타낸 것인가 하는 ‘재료’와 ‘기법’에 관심이 쏠린

다.

가드너는 학생들의 미적 인식이나 감상 능력도 미술표현의 발달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발달과정을 거친다고 한다. 따라서 감상지도도 학생들의 수준과 발달과정에 맞추어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준비성에 맞게 적기에 지도될 때 학생들은 큰 부담을 느끼지 않고 감상활동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감상 능력 발달 단계를 보면 롯킨스의 제2기와 제3기가 해당되고, 가드너의 경우는 사실적 단계와 탈사실적 단계에 해당된다. 이것은 충분히 감상 수업이 이루어짐을 시사해 준다. 또 가드너에 의하면 탈사실적 단계로 다양한 미적 특성에 관심을 갖고 색다른 특성을 지각하게 되며 재료와 기법에도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타인의 개성과 미술품의 각기 다른 표현양식에도 관심을 보이고 감수성도 예민해지므로 감상교육이 가능해지는 시기라는 것이다.

학생들의 발달단계에 맞게 감상대상이나 참고자료들을 고려하여 적기에 제시해야 한다. 초등학교 저학년에게는 자기의 작품에 자신을 갖는 시기이므로 자신의 표현된 작품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를 많이 주고 고학년에게는 타인의 개성도 인식하고, 사실적 작품과 그 외 다양한 작품을 제시하여 사실적인 표현에 대한 나름의 태도를 갖게 하고 다양한 다른 표현도 존재함을 이해하게 한다.

## 2. 미술 비평의 이해

### 가. 미술비평의 개념

비평은 '사물의 미추(美醜)·선악·장단(長短)을 들추어내어 그 가치를 판단하는 일'이다. 미술 비평은 미술작품에 대한 가치 판단을 말하며, 작품의 가치를 판별하고 평가하는 일이다(박휘락, 2003; 김홍숙, 2004, p247에서 재인용).

감상은 그 대상의 자연과 미술품 그리고 일상생활의 모든 것들이나, 비평의 대상은 사람들이 만든 미술품에 한정된다. 비평은 작품에 대한 가치를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판단하는 과정이며, 유익한 비평은 잘못된 점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에 나타나는 흥미 있는 요소들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미술 비평은 미술을 이해하고 감동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작품에 대한 사람들

의 판단과 해석을 통한 기준들을 열거하고 분류하여, 그것들을 사회적으로 서로 공유하고 공식화하는 것이다(김홍숙, 2004).

## 나. 비평의 의의

박휘락(2003)은 비평의 의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누어 밝히고 있다.

첫째로 ‘학문중심 미술교육’의 한 영역으로서의 ‘미술비평’의 목적이다.

미술비평을 도입한 DBAE에서는 ‘미술의 특성에 관한 제 개념(미학)’과 ‘미술작품이 생산되어 나온 배경(미술사)’ 그리고 ‘미술작품을 창조하기 위한 과정과 기술(미술제작)’에 대하여 학습하면서, 아울러 ‘미술작품을 평가하고 판단하기 위한 기준들(미술비평)’에 대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교과내용이 설정되어 있다. 여기서 ‘미술비평’은 미술작품의 형상을 분석하고 그것의 의미를 해석하며, 비판적인 판단을 하고, 학생들이 미술에 관해 보고 생각한 것, 느낀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거나 기술하는 것을 ‘미술비평을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미술비평을 미술작품에 대한 ‘지각과 반응’ 능력을 목표로 삼고 있다. 직접적으로는 미술작품을 보고 미적 가치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활동을 통하여 미적 특질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능력을, 나아가서는 인간의 중요한 능력의 한 요소로서의 ‘미적 지각력’ 혹은 ‘감성적 지각’을 기르려는 것에 목적이 있다.

둘째로 미술작품에 대한 직접적인 비평적 능력 육성이다.

미술작품에 대한 비평적인 능력은 작품의 질을 직접적으로 평가하는 힘이며, 언어를 매개로 하여 표현하는 능력이다. 미술작품은 재료와 도구란 물질성을 바탕으로 색, 형, 질과 같은 감각적인 요소와 이들을 전체적으로, 또는 미적으로 통합하여 이루어지는 물질화된 시각세계이다. 다시 말하면 미술작품은 형식과 내용, 물질과 정신이 조화롭게 융합되어 하나의 창조적 우주를 이루고 있는 정신적 세계이다. 미술비평은 이러한 특성을 지닌 작품의 의미를 해석하고 가치를 판단하며 논의하는 전문적인 영역이다. 그러므로 미술비평 교육이 지향하는 일차적인 목표는 미술작품을 ‘보고, 느끼며, 해석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구체적인 능력을 기르는 것이 직접적인 목표이다.

또한 미술비평은 ‘보는 일’과 ‘말하는 일’을 대응시키면서 추구해 나가는 언어

적 작업이라고도 할 수 있다. 미술작품에 대한 개인적 반응이나 자기 나름으로 분석하고 해석한 작품의 특성을 언어적 수단을 동원하여 여러 사람에게 표현하는 활동이다. 이것은 직접적으로는 자기가 획득하고 있는 언어 자원을 최대한 발굴하여 현상을 설명하는 활동인 동시에, 보다 중요한 차원으로서 미술작품의 시각적이고 미적인 질을 언어로 형상화시키는 고도의 능력을 훈련시키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로 자신의 대한 탐구와 비평적 사고 능력 배양이다.

미술비평은 직접적으로는 미술작품에 대하여 반응하고 그 내용을 기술하고 분석하며, 작품의 의미를 해석하고 가치를 평가하는 활동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자기탐구'라 할 수 있다. 비평가는 일차적으로 수용자로서 작품을 접하여 생겨나는 문제들에 대하여 자신과의 끊임없는 대화를 전개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에게 작품을 비추거나 혹은 작품에 자기 자신을 비추거나 내면적인 질문을 끊임없이 던진다. 이것은 작품에 대한, 또는 자기 자신에 대한 명제로서의 가치나 진실성에 대하여 냉엄하게 탐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노부자(1996)는 미술비평의 의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미술감상활동은 단순히 바라보는 행위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작품이 지닌 의미와 질적 가치를 발견해 내는 일이므로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예술철학을 바탕으로 한 미술작품의 미적 수준을 논의하며 가치판단을 형성할 수 있는 비평활동이 미술감상에서는 필연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미술비평의 목적은 학생들로 하여금 미술의 의미와 가치 그리고 중요성에 대한 통찰력 있는 이해를 돕고자 하는 데 있다. 이와 같은 미술감상활동을 위해 감상자들은 미술작품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식별하며, 해석 그리고 평가를 할 수 있는 안목이 요구된다.

학생들은 미술비평을 배움으로써 특정 미술의 의미를 설명하고 비평적으로 해석하거나 작품의 가치가 하찮은 것인지 훌륭한 것인지 명백히 설명할 수 있는 지적 감상능력을 키울 수 있어야 한다.

## 다. 비평의 방법

펠드만은 작가들이 처음부터 완성될 작품을 머리 속에 그리고 나서 부분적으

로 표현해 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작하여 점차 수정·보완하면서 하나의 작품을 완성해 가는 것처럼 작품이 부분적, 단계적으로 창조되듯이 작품 비평에 있어서도 서술→분석→해석→평가의 순서로 전개해 갈 것을 주장하였다. 다음은 펠드만이 비평방법으로 제시한 단계이다.

#### ① 서술(Description)

서술은 미술 작품에서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을 기록하여 목록을 만드는 단계이다. 즉, 서술이란 대상에서 보여 지는 바를 상세히 검사함으로써 미술 작품의 특성을 잘 알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결론이나 평가, 개인의 주관적 반응 등은 보류해야 한다. 서술의 목적은 표현된 형태, 색상, 공간, 중량감과 예술적 기교를 지적하는 것이며 공정하고 중립적이 되기 위해서 감정과 기호가 드러난 지나친 말이나 표현을 피해야 한다.

#### ② 분석(Formal Analysis)

분석의 단계는 작품 속에서 각각의 형태들이 어떻게 서로 상호 작용을 하는가를 분석하여 기술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분석해야 할 것들은 크기, 형태, 색상, 질감, 공간·부피 관계이다.

· 크기 관계 : 사물의 크기는 작품 속에서 그것이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한 어떤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큰 것과 작은 것, 그리고 비슷한 크기를 가진 것들의 관련성을 살펴보아야 한다.

· 형태 관계 : 형태들이 어떻게 작품 속에서 결합되었는가는 작품의 전체적인 의미를 해석하고 평가하는데 가치 있는 근거를 얻을 수도 있다. 형태가 서로 연관되어 이어져 가는지, 비슷한 또는 서로 상이한 형태들이 만나서 어떤 상황을 만들어 내는지를 봐야 한다.

· 색상 관계 : 결합된 형태들의 색상이 비슷한가 다른가, 색상이 강한 대비를 이루는가 아니면 조금씩 변해 가는가를 살펴본다. 또한 특별히 명도 차이를 보이는 것은 무엇인가 등을 눈여겨보는 판단의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줄 수도 있다.

· 질감 관계 : 질감의 처리가 작품 속에서 표현적인지 실제적인지를 살펴보고, 서로 관련된 형태들의 질감 표현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파악한다. 질감 표현의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작품이 전달하는 의미와 그 작품이 갖는 정서적 특성까지



도 알아낼 수 있다.

· 공간, 부피 관계 : 작품을 분석할 때에는 형태들의 위치에 주목한다. 전면에 표현된 형태와 후면에 묘사한 형태를 살펴보고, 공간이 열려있는지 닫혀있는지를 살핀다

### ③ 해석(Interpretation)

해석은 주제와 생각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미술 작품에 나타난 정서와 의미를 알게 되고 기술적 관찰과 분석적 관찰을 통합하는 것이다. 설명, 분석 단계에서 관찰했던 모든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결정하는 단계가 해석단계이다. 비평에 있어 해석은 서술하고 분석한 것을 토대로 작품의 전체적 의미(주제)를 발견하는 과정이다. 이는 비평 수행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해석은 작품을 통해서 작가가 무엇을 표현하려고 하는가를 작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다. 좋은 해석은 객관적이어야 하고 남들도 동의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나 증거를 갖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해석은 설명, 분석을 근거로 자신의 느낌과 작품의 미학적 특질을 기술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 ④ 평가(Evaluation or Judgement)

평가란 진가, 가치, 성공 등을 결정하고 다른 작품과 관련지어 미술작품에 순위를 매기는 것을 의미한다. 평가는 명백한 기준과 근거를 수반해야 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비평적 평가를 내릴 때 가능한 한 많은 작품들과 연관시켜보아야 하고,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미술의 역사에 나타난 작품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것이 좋다. 미술의 역사를 많이 아는 것이 좁은 안목의 주관성을 견제하는 수단이 된다.

이 단계에서는 작품의 가치를 판단하고 정당화하는 단계인 것이다. 비평의 마지막 단계인 평가는 앞 단계에서 설명·형태분석·해석 단계에서 찾아낸 근거들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 작품이 잘되었다고 생각하는가? 작품에서 감동을 받을 수 있는가? 갖고 싶은가? 또 작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이유를 아동들이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내가 이 작품을 다시 제작한다면 어떤 부분을 수정하겠는가? 등 비평적 어휘를 구사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 라. 감상과 비평의 차이점

김홍숙(2004)은 감상과 비평의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미술 감상은 비평을 포함하는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의미이다. 미술 감상과 비평은 미술작품을 보고 미를 체험하며, 그 미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향유하는 과정이므로 같은 의미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미술 감상과 비평은 언어를 매개로 사용하는냐와 가치 판단이 사회적으로 공유되느냐, 이해와 감동 중 무엇을 우선 하느냐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미술 비평은 작품이 갖는 가치를 분석하고 평가하며 판단하여 언어로 표현하는 활동이나 감상은 반드시 언어를 매개로 하는 것은 아니다. 작품을 보고 감동을 느끼며 이에 대하여 해석하고 판단하는 비평의 과정을 거쳤더라도 그 결과가 개인의 내면에만 잠재되어 있고, 언어를 매개로 표현되지 않았다면 이는 비평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비평의 목적은 작품에 대해 사회가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가치 판단을 하는 것이고 미술감상은 사회적으로 공유되기 위한 가치 판단이 아닌 개인의 생각과 느낌이므로 그 내용을 반드시 언어화할 필요가 없다.

미술 감상과 비평은 가치 판단의 결과와 수용에 차이가 있다. 미술 비평의 가치 판단은 사회적으로 공유될 수 있는 기준들을 전제로 해야 하므로 개인의 도선적인 해석과 판단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감상은 개인의 가치 지향적 수용활동이므로 엄격한 판단 기준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 개개인의 주관적 성향에 따르며, 객관적인 기준으로 작품에 등급을 매기고자 하지 않는다. 또한 비평활동에서는 사회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가치 판단이 목적이거나, 감상은 가치 판단의 사회적인 공유가 아닌 각자의 주관적인 경험이 목적이다.

미술 감상은 감동을 위한 이해이나 미술비평에서는 감동보다는 작품의 이해를 우선하여 가치 판단에 중점을 둔다. 감상에서는 이해에 중점을 두어 감동을 축소한다면 이는 올바른 감상이라 보기 어려우나, 비평에서는 작품에 대한 이해를 중점으로 기술하고 분석한다.

그러나 미술 감상과 비평은 별개의 것으로 일어나는 과정이 아니다. 감상과 비평은 상호작용하며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일어나는 정서와 사고의 종합활동이다. 감상을 배제한 비평이란 존재하기 어려우며, 감상의 과정에서 작품에 대한 가치 판단과 선호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므로 비평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다. 직관적

인 감상으로 작품에 대한 느낌과 판단이 이루어졌다면, 분석적이고 체계적인 비평으로 또 다른 미적 체험이 이루어진다. 감상은 비평의 토대가 되며 비평은 감상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도와줌으로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다.

### Ⅲ. 미술 감상 지도 방법 연구

#### 1. 미술 감상 지도의 방법

박휘락(2003)은 감상지도의 일반적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① 수용적 감상과 비판적 감상(감상 태도 면에서)

수용적 감상과 비판적 감상은 방법이라 하기보다는 수용자의 태도에 관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수용적 감상은 감상작품에 대해서 이것은 ‘좋은 작품’ 혹은 ‘좋지 않은 작품’, 혹은 ‘이 작품은 훌륭한 작가의 작품’이니 “이 작품은 국보적인 명작이다”라는 선입관에 의하여 작품을 감상, 수용하는 태도이다. 일반적으로 명화 명작 감상의 경우 학생은 의례 “이 작품을 명작이기 때문에 유명한 작품이야”라는 등식으로 작품을 대하게 된다. 따라서 작품을 해설하는 교사의 이야기를 수용하는 데 아무런 비판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취하게 된다. 이러한 점은 이른바 ‘권위적 감상’과도 상통하는 경우인데 권위를 가진 교사나 비평가, 작가, 또는 관광지 안내원이나, 미술관 큐레이터 등의 설명에 감상자는 그저 맹목적으로 수용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다. 심지어 유명한 미술관이란 공간에 전시되어 있기 때문에 아예 훌륭한 작품으로 인정하고 감상에 임하기도 한다.

반면 비판적 감상은 그 반대의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작품을 대하고 보려는 감상이다. 이것은 작품의 좋고 나쁨을 적극적인 자세로 판단하려는 비판적, 탐구적 태도에 의한 감상이라 할 수 있다. “이 작품은 무엇으로 나타내었는가?”, “이곳은 왜 이렇게 나타내었는가?”, “이 작품은 어디가 그렇게 좋은 것이지?”, “이 작품은 작가가 무엇을 나타내려고 했는가?”라든가 “이 작품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가?”, “내가 보기엔 이러한 점은 묘사가 부족한

것 같은데?” 등등 무의식적이지만 자기 나름으로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주체적이고 비판적인 자세로 작품에 접근하려고 한다.

이렇게 보면 감상적인 태도 면에서 소극적이고 수용적인 감상보다 주체적이고 비판적인 감상이 훨씬 바람직하다. 감상에서 작가의 권위나 작품을 해설하고 비판하는 사람의 권위에 그대로 맹종하는 수용적 감상으로는 ‘보는 눈’을 뜨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술의 감상은 결코 남의 미감이나 지식을 그대로 수용하는 활동이 아니라, 훌륭한 예술작품을 통하여 자기 감각과 시각을 세련되게 훈련시키고 자신의 심적, 지적 내면을 스스로 형성해 나가야 하는 미적 체험활동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교사는 감상 대상작품을 학생들에게 제시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작품과 직접 마주할 수 있도록 그들의 감각을 촉진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교사는 학생이 스스로 작품으로 다가가도록 하는 안내자로서의 역할, 그리고 감각과 사고를 자극하는 촉진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학생과 작품과의 대화에 깊숙이 끼어들지 말아야 한다. 될 수 있는 한 학생이 자신들의 감각과 의식을 자유롭게 발휘할 수 있는 물적, 심적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안내하며, 문제를 제시하고, 암시하며, 감상의 핵심을 찾아 스스로 ‘예술가의 정신’이란 맑은 샘물이 고여 있는 작품의 세계에 몰입하도록 학습을 설계하고 전개해야 한다.

## ② 직관적 감상과 분석적 감상(감상 방법적인 면에서)

우리가 어떤 미적 대상에서 감동을 느끼는 것이 관련 요소를 따져서 이루어지는 심적 반응 때문만이 아니다. 분석적이고 논리적인 사고 작용 없이 직접적이고 감성적으로 편안하게 대상의 전체와 접하는 가운데서 즉시적으로 또는 직감적으로 감동을 받는 경우가 많다. 특히 시각적인 미술작품은 감각적으로 바로 대하자마자 강한 감동과 충격을 주는 경우가 많다. 더 나아가 비교적 주관적이지만 곧 작품이 지닌 미적 가치의 평가까지도 내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런 것이 직관적 감상이다. ‘직관’이란 이성적 사고를 매개로 하지 않고 일어나는 인식작용이다. 어떤 사상(事象)에 대하여 분석적 사고를 가하지 않고도 얻을 수 있는 고도의 인식 능력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도 현상의 ‘내부 본질까지도 보는 힘’이 직관인 것이다. 이러한 직관력에 의하여 작품을 수용, 감상하는 것을

중히 여기는 것이 직관적 감상법이다. 이 같은 직관력에 의해서 얻는 미적 감동은 어떤 배경이나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한 감동과 평가는 감상자의 풍부하고 예민한 감수성과 미적 정서 그리고 수용자의 예술관이나 인간관 등을 바탕으로 한 전인격적인 배경과 미술작품이 조형적 특성이 서로 교감했을 때 얻는 쾌감과 판단이다. 직관력은 자연발생적으로 누구나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풍부한 미적 체험활동으로 쌓인 경험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지적 탐구 결과로서 미술에 관한 지식과 취미를 쌓아 간다면 더욱 훌륭할 것이다.

직관적 감상과 대개념이라 할 수 있는 ‘분석적 감상’이란 미술작품의 색, 형, 질 등과 같이 조형적 구성 요소들을 들어내어서 분석적으로 감상하는 방법을 말한다. 하나의 미술 작품을 볼 때 분석적 요소별로 따져보는 것으로 작품을 객관적으로 천천히 감상해 들어가는 것이다. 이때 분석요소는 형식상의 조형적 특질이 중심이 될 것이다. 분석하는 요소는 작품의 소재들과 주제, 조형요소나 조형 원리적인 처리 방법, 그리고 사용된 표현재료와 그 취급 기술 등이 추가될 것이다. 이런 것은 다른 개념으로 말해서 ‘분석 관점’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관점에 따라 분석할 때 분석 대상으로서의 각 요소들은 하나의 작품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작품 전체 속에서의 요소이며 전체와 유기적인 관계에서 존재하는 요소들이기에 부분과 전체와의 관계성을 고려하여 감상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나의 작품을 감상하고 비평할 때 직관적 감상과 분석적 감상의 바람직한 관계는 직관적 감상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 분석적 감상을 가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감상은 지적 활동 요소가 강하기보다는 오히려 감성적 측면이 더 진하게 작용할 것이고, 미적 대상을 접하여 심적 현상으로서 먼저 일어나는 것은 감성적 인식 작용일 것이며, 그것은 보다 순수한 미적 체험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감상을 지도할 때 미술작품을 접하여 초발적으로 일어나는 학생들의 미적 반응을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이다. 교사는 학생들이 작품을 보고 자기 감정을 계발하도록 촉진하여야 한다. 그런 뒤, 왜 그러한 감정이 일어났는지 까닭을 말해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까닭을 말해보게 한다는 것은 직관 속에 분석을, 그리고 분석 가운데 직관이란

상호작용을 촉진시키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 ③ 자유 감상과 관점 감상(감상 방법적인 면에서)

자유 감상은 용어 그대로 아무런 제약이나 관점 없이 자유롭게 미술작품에 대하여 느끼고 수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관점 감상은 이와는 달리 작품을 보는 관점을 설정하여 그에 따라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작품을 분석적으로 보는 관점들은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 주제: 인물인가, 정물인가, 풍경인가, 동물인가 혹은 종교적인가, 생활적인가 등
- 재료: 수채물감인가, 수묵인가, 유화물감인가 등
- 구도: 동적인가, 정적인가 등
- 색채: 따뜻한가, 차가운가 등
- 원근: 조감법인가, 투시 원근법인가, 공기 원근법인가 등
- 명암: 빛과 음영은 어떠한가 등
- 양식: 사실적인 작품인가, 초현실적인 작품인가, 추상적인 작품인가, 장식적인가, 기능성인가

관점이 될 수 있는 요소는 조형요소와 조형원리들에 의해서도 설정할 수 있다. 작품을 볼 때 막연히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관점들에 의하여 보는 것이 의미에 접근하기 용이하다. 그러나 분석관점은 항상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전체성 속에서 조화적으로 형성되어 있기에 유의하여 보아야 한다.

### ④ 단독 감상과 비교 감상(감상 대상의 양적인 면에서)

단독 감상은 감상 대상의 양적인 면에서 한 개의 작품을 취급하든지 또는 같은 요소와 특질을 가진 작품만을 제시해두고 감상하는 방법이다.

비교 감상은 단독 감상과 대립되는 개념으로서의 방법이다. '비교한다'는 것은 첫째 두 대상에서 주로 공통되는 성질, 즉 유사점을 지닌 것들을 서로 연결하여 그 비슷한 점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방법을 말한다. 다음은 이와는 달리 두 가지 대상에서 주로 상반되는 성질이나 차이점을 끄집어내어 그것들의 특성을 설명하는 것을 '대조한다'고 할 수 있다.

비교법은 작품의 특질을 발견하는 것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비교의 기능은 연구 대상이 타와 다른 점, 또는 그 특수성을 한층 예민하게 부각시키든지, 혹은

그 내적 친근성을 명확히 해주는 데 있다. 즉 비교법은 감상이나 비평에 있어 두 작품 사이를 한층 뚜렷하게 분리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더욱 가까이 접근시킨다. 이와 같이 비교의 중심적 역할은 ‘발견적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비교 감상은 비교해 보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비교법은 대상의 특질을 분석하여 얻은 자료를 근거로 하여 궁극적으로는 작품의 질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활동에 있어 하나의 기술이다. 한 작품을 다른 한 작품에 대비시켜 보는 가운데 얻은 자료에 의하여 감상 대상이 지니고 있는 본질로 접근해 들어갈 때 귀중한 단서를 모으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비교 감상에 의하여 수집한 정보와 단서들은 대상 작품을 감상하고 비평하며 조형적 특성을 밝히고 의미를 해석하고 가치를 평가하는 데에 제공되어야 한다.

#### ⑤ 전체 감상과 세부 감상

감상은 시각적인 대상 작품에서 평면적인 회화나 입체적인 조각을 전체와 세부로 나뉘질 수 있다. 미술작품을 대할 때 먼저 전체를 직감적으로 보고 다음 세부로 눈을 돌려 감상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이와 같은 과정이 보다 의도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전체 감상과 세부 감상이다.

전체 감상은 작품에 대하여 먼저 직감적으로 작품 전체를 보아서 초발적인 느낌을 갖거나, 또는 작품의 소재와 주제, 그리고 재료와 방법, 표현 양식 등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런 요소들을 보다 의도적으로 분석해 보는 것도 1차적으로는 작품의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다.

세부 감상은 작품의 세부를 부분적으로 살피는 방법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을 수 있다. 그 한 가지는 감상작품에 대한 관심과 흥미, 그리고 감동을 자아내기 위하여 어떤 의도에 따라 작품의 세부를 명료화하여 보이는 것이다. 다음 한 목적은 대상 작품을 보다 심도 있게 살피고 분석하며, 그 특징을 맛보기 위하여 적용하는 것이다. 전자는 주로 감상의 도입 단계에서 후자는 본격적인 감상 단계에서 행해진다고 볼 수 있다. 세부를 살피는 보다 본질적인 의도는 특히 표면 질감이나 붓의 사용 방법, 또는 작품 세부의 구성적 밀도 등을 느끼고 이해하려는 데 있을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2005)에서는 감상 작품을 위주로 한 감상 방법과 문예법을 이용한 감상 지도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감상 작품을 위주로 한 감상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다.

① 단독 감상법: 한 작품의 어떤 특정한 부분을 가지고 감상하기, 기법을 달리 했을 때의 효과와 이러한 기법으로 다른 주제를 표현했을 때의 효과에 대해서 상상하기, 감상 후에 작품을 보지 않고 기억을 통해 그려보기

② 작품의 비교 감상법

· 두 작품의 비교 감상법: 두 작품에서 기법과 주제를 서로 달리했을 경우를 상상하기

· 종류별 비교 감상법: 어떤 작품들을 분류해 각각의 특징을 비교 감상하기

③ 분석·종합 감상법

· 분석적 감상법: 구도 분석, 색채 분석, 질감 분석, 명암분석, 필치 분석, 형태 분석, 표정 및 동세 분석 등

· 종합적 감상법(직관적 감상): 비교, 단독, 분석 감상 등은 최종적으로 종합 감상으로 귀결되어야 한다.

④ 작가 연구

작가에 대하여 조사하기, 작가의 여러 작품을 종합하여 감상하기, 작가와의 대화 등이 있으며, 이 중 작가와의 대화는 주변의 미술가를 초청하거나 작가의 전시회, 작업실을 방문하여 작가, 교사, 학생들이 함께 수업을 하는 방법이다.

⑤ 문예법

문예법을 이용한 감상지도 방법은 학생이 작품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였고 어떤 감동을 받았는가를 비평문, 감상문, 평가표 작성하기 등의 활동을 통하여 이해하는 감상 방법이다.

감상문을 쓰라고 할 경우 많은 학생들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몰라 평론가, 비평가의 글에 의존한다. 평론가, 비평가의 글은 작품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참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적극적으로 자신의 생각, 느낌을 중심으로 감상문을 쓰도록 이끌어야 한다.

## 2. 미술 감상 교수-학습 모형

류재만(2004)은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미술 감상 교수-학습 모형으로



문답형 교수-학습모형, 비평형 교수-학습모형, 통합형 교수-학습모형, 그 밖의 감상 교수-학습모형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① 문답형 교수-학습 모형

문답형 감상학습은 질문형 감상학습이라고도 하며 이 학습 모형은 다시 단독 작품학습, 비교형 학습으로 나눌 수 있다.

· 단독 작품 학습 모형

단독 작품 학습 모형은 주로 교사가 발문을 하고 학생이 자신의 생각을 답하거나 학생들이 질문을 하고 교사나 학생들이 답하는 형태로 수업이 진행된다. 이 감상학습은 초·중·고 학생들에게 모두 유효한 감상학습으로 교사는 발문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단편적인 지식이해 감상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해야 하고 교사만 발문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도 적극적으로 질문에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의 궁금한 점이나 생각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심리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단원 김홍도의 ‘씨름’을 문답형 감상 학습으로 감상 수업을 할 경우의 발문의 예는 다음과 같다.

<작품보기>

- 이 그림을 보고 느낀 첫인상은?
- 이 그림에서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가?
- 이 그림은 무엇을 생각나게 하는가(연상되는가)?
- 이 그림에서 특이한 느낌을 주는 것이 있는가?
- 이 그림에서 궁금한 점이 있는가?

<미적 요소 찾기>

- 여러분의 눈길이 가장 먼저 가 닿는 부분은 어디인가요?
- 왜 그럴까요?
- 이 그림은 어떤 모습을 그렸나요?
- 이 그림을 그리는데 어떤 재료를 사용했을까요?
- 옛장수는 왜 다른 곳을 보고 있을까요?
- 사람의 인체 구조상 실제로 있을 수 없는 모습은 어디일까요?
- 사람들의 표정을 자세히 관찰하고 차이점을 찾아보세요?

- 이 그림의 구도는 어떠한가요?
- 씩씩하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느껴집니까?
- 만일 이 작품의 배경 색을 칠하면 그 느낌은 어떻게 변할까요?

<작품읽기>

- 이 그림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떠한가요?
- 이 그림은 어떤 목적으로 그렸을까요?
- 이 그림에 처음 느꼈던 생각과 달라진 점이 있나요?
- 이 그림의 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이 그림의 제목을 붙인다면 어떻게 붙이면 좋을까요?

<미의 발견>

- 주제 표현이 잘 된 것 같습니까?
- 이 그림이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나요?
- 이 그림에서 재미있게 표현한 것은 무엇인가요?
- 이 그림에서 아쉬운 점은 무엇입니까?

<내면화하기>

- 이 그림이 감동을 주나요? 그 이유는 뭘까요?
- 이 그림이 마음에 드나요?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 이 그림에서 감상하고 느낀 점을 말해보세요?
- 작가에게 편지를 써 봅시다.

<사회·문화적 배경 관련>

- 이 같은 민속운동은 주로 어느 명절 때 많이 했을까요?
- 이 그림에 여자가 보입니까? 왜 그럴까요?
- 관중 속에는 옷차림이 다른 것을 볼 수 있나요? 왜 그럴까요?
- 어느 시대의 작품일까요?
- 이런 그림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 왜 이런 류의 그림이 이 시대에 유행했을까요?
- 이 그림의 누구의 작품일까요? 그림의 원제목은 무엇일까요?
- 풍속화에 대해서 조사해 봅시다.
- 이 작가와 그의 다른 작품에 대해서 더 조사해 봅시다.

· 비교형 학습

비교형 학습은 작품의 특징이 뚜렷한 두 세 작품을 서로 비교하는 가상 수업이다. 이 감상학습에서는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수업과 감상 워크시트를 활용하는 수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묻고 답하는 학습은 감상학습의 방법에 익숙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유익하다. 그러나 감상 워크시트를 통해서 하는 수업 모형은 학생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고 스스로 작품의 조형요소나 조형원리, 특징들을 찾아내고 비교하여 판단하는 데 의의가 있다. 수업 진행 전에 작품과 작가에 대해 조사를 해오게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과제를 통한 조사를 통해 풍부한 정보를 얻어서 쉽게 접근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지식의 습득으로 인해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보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단점이 있다.

과제를 하지 않고 비교 감상 수업을 할 경우는 작품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느낄 수는 있으나 자기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을 방해받지 않은 상태에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이 감상학습의 경우 작품 사이에 뚜렷한 특징이 있는 경우가 효과적이다. 예를 들면 자화상의 비교 감상 수업일 때, 우리나라 윤두서의 자화상과 미켈란젤로의 자화상의 비교라든지, 또는 입체작품과 평면작품의 비교감상 등 학생의 발달 과정에 맞는 작품을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② 비평형 교수-학습모형

비평형 교수-학습 모형은 학생들의 미술비평의 원리와 방법을 알고 있을 때 가능한 방법이다. 이 수업모형은 학생들이 비평의 단계를 충분히 이해하도록 지도가 이루어진 후에 적용해야 한다.

이 방법은 미술비평의 과정으로 펠드만이 제시한 단계와는 다르다.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어떤 단계가 아니라 과정으로 순서가 뒤바뀌어도 상관이 없고, 어느 과정에서나 학생들의 느낌이나 생각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

· 생각 꺼내기

작품을 대면하는 순간의 느낌이나 인상은 중요하다. 그 작품에 대한 첫인상을 나름대로 적어보게 하는 단계이다.

· 관찰하고 이야기하기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그대로를 상세하게 언어로 묘사하는 단계이다.

· 미적 요소 찾기

이 과정에서는 제작 기법이나 사용한 재료나 용구 등을 분석하고, 조형원리들을 찾아내는 단계이다. 아동 수준에 맞는 크기나 색상, 형태, 질감, 공간·부피 관계 등을 분석하게 한다. 예를 들면 “크레파스와 수채물감을 이용하여 그렸어요.” “파란색을 많이 사용했어요(바다 분위기를 잘 표현하기 위해서).” “산과 집과 나무들의 공간 배치가 잘 되었어요.” “가까이 있는 나무는 크게 그리고 멀리 있는 나무는 작게 그렸어요.”

· 주제 찾기

이 과정에서는 자신의 느낌을 기술하고, 작가가 표현한 의도(주제)를 읽어 내는 것이다. 예를 들면 가을 냄새가 물씬 나는 황금들판을 그린 그림이 있다고 하자. “가을이 왔음을 느끼게 하고, 허수아비를 익살스럽게 표현했다. 또 누런 벼들을 보니 농부들이 기뻐할 것 같다. 이 그림은 누런 벼와 허수아비, 참새 등으로 보아 가을의 들판을 표현한 것 같다.”

· 미적 가치 판단

이 과정에서는 아동의 나름대로 가치판단 즉 평가를 내리는 과정이다. 작품에서 나름대로의 근거에 의해서 잘된 점이나 아쉬운 부분을 지적하고 종합적인 평가를 내리는 단계이다.

· 생각 넓히기

이 과정에서는 앞에서 제시된 과정을 통해서 학생은 자신의 시각으로서 하나의 작품을 비평하게 된다. 따라서 그 작품을 깊이 있고 폭 넓게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작품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는 그 작품이나 작가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작품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③ 통합형 교수-학습모형

통합적 교수-학습모형이란 감상수업을 미술의 이해와 감상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표현 활동과 연계해서 통합적으로 적용한 감상 수업을 말한다. 통합적 교수-학습은 크게 조형요소의 역할을 탐색하는 감상학습과 표현기법을 이해하는 감상학습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조형요소의 역할을 탐색하는 감상학습

이 감상학습은 어떤 작품을 감상하고 작품 속의 조형 요소들, 즉 크기, 형태, 색상, 질감, 공간, 부피 등을 분석하고, 나름대로 재해석하여 각 조형 요소들의 구성을 변화시켜 감상 작품을 변화시켜 표현해 보는 것이다. 표현이 끝나면 원래의 작품과 비교 감상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으며, 그 변화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했던 것과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자신의 시각을 교정하는 과정에서 미적 안목을 높이는 것이다.

이 감상학습에서 조형요소나 원리의 변화에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예상할 수 있다.

- 화면 속의 형태를 변형시켜 본다.
- 화면의 전체적인 색조나 어떤 부분의 색을 다르게 바꾸어 본다.
- 화면 속에 표현된 사물들의 위치를 바꾸어 본다.
- 화면 속에 필요한 내용을 더하거나 뺀다.
- 화면을 더 연장시켜 화면 밖까지 그려본다든지, 또는 일부분만 확대해서 그려본다.

· 표현기법을 이해하는 감상학습

표현 기법을 이해하는 감상학습은 감상한 작품의 표현 기법을 이해하고, 그 표현 기법을 사용하여 다양한 주제와 재료를 탐색하여 표현해 보는 것이다. 여기서 기법이해는 단순히 표현기법의 이해를 넘어서 그 작품과 작가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지도가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쇠라의 작품 '라 그랑자트의 섬의 일요일 오후'의 그림을 감상하고 쇠라가 이용한 점묘법(밝고 생생한 빛의 감동을 전달하기 위하여 화면에 원색의 점을 병치시켜 표현한 기법)을 이해하고, 이처럼 빛의 효과를 살릴 수 있는 점묘법을 확실히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림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김혜순(2001)은 수업모형의 종류를 탐구 수업모형, 토의 수업모형, 창의적 사고 수업모형, 경험 수업모형, 개념 수업모형 5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① 탐구 수업 모형

탐구집단을 끌어감에 있어 교사는 융통성을 발휘해야 하고 가능하면 학생들에

게 문제해결의 단서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탐구의 절차를 알아보면 첫째, 상황의 제시와 탐구문제의 설정 둘째, 탐구의 계획수립 셋째, 탐구활동의 전개 넷째, 탐구결과의 정리 및 발표 다섯째, 탐구활동에 대한 평가이다.

이러한 탐구 수업모형을 감상영역에 적용하여 수업모형을 구상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I-1> 탐구 수업모형 적용계획

문제 제기	탐구계획수립	탐구활동 전개	발표	평가
탐구할 작가나 작품을 제시한다.	소집단을 구성하고 각자 자신의 역할을 분담한다.	각자 자신이 할 탐구를 하고 교사를 확인한다.	탐구 활동을 마치고 나서 그 결과를 발표한다.	소집단별로 탐구 활동에 대한 평가를 한다.

② 토의 수업 모형

토의의 절차모형은 크게 여섯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째, 토의를 잘 시작하기 둘째, 토의를 참여시키기 셋째, 토의를 민주적으로 진행하기 넷째, 허용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다섯째, 적절하게 통제하고 조정하기 여섯째, 토의를 잘 끝내기가 그것이다.

<표 III-2> 토의 수업모형 적용계획

문제 제기	토의 진행	통제 및 조정	평가
토의할 작가나 작품 등 주제를 제시한다.	토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리더(교사)는 필요한 경우 적절한 통제와 조정을 한다.	감상능력 및 발표력, 수업태도 등에 대해 평가한다.

③ 창의적 사고 수업모형

이 수업모형은 미술과 수업에 가장 적합한 수업모형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창의적 사고 수업모형은 학생들이 어떤 대상을 다루는 데 있어서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을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는 수업모형이기 때문이다. 미술과의

특성상 이 수업모형에서 지향하는 목적은 미술과 모든 영역의 수업에서 다 적용되고 있다고 하겠다. 창의적 사고는 다음과 같은 세 단계를 적용하면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다.

첫째, 창의적 사고를 촉진시키는 분위기 조성 둘째,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결과를 이끌어 내는 기법 셋째, 제안된 아이디어의 검증과 평가다.

이에 감상영역에서 이 수업모형을 적용하여 감상지도 수업모형을 구상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I-3>창의적 사고 수업모형 적용계획

분위기 조성	감상단계	표현단계	발표단계	평가단계
도전적이고 적극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표현된 미술 작품에 대하여 감상한다.	자신만의 창의적인 주제, 구성, 방법으로 표현한다.	표현활동을 마치고 나서 창의적으로 표현한 점을 발표한다.	수업태도 및 감상 능력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한다.

#### ④ 경험 수업 모형

경험 수업모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학습 자료를 비치해 놓은 학습센터를 활용하여야 한다. 경험 수업모형에서 가장 본질적인 것은 아동들이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학습활동이 구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동시에 아동들의 학습활동에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사항으로는 구체적인 자료를 다양하게 준비하여 줌으로써 실제로 만져보고, 조작해보고, 실험이나 시범을 해 볼 수 있는 활동들을 제공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경험 수업모형은 미술관에서 감상작품을 선택하여 감상한 후 유사한 표현방법과 주제를 가지고 아동들에게 직접 표현활동을 하도록 하는 지도형태로 적용이 가능하다.

<표 III-4>경험 수업모형 적용계획

자유로운 탐색	인도된 탐색	표현활동	평가
감상작품에서 관찰된 점을 자유롭게 토론한다.	교사의 인도에 따라 중요한 점을 확인하며 관찰한다.	감상작품에서 발견한 표현방법과 주제를 가지고 표현하여 본다.	의도한 것들이 자신의 작품에서 잘 표현하였는지 평가한다.

### ⑤ 개념 수업모형

개념획득을 위한 수업전략은 다음의 네 가지 접근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개념에 해당되는 어휘(단어)를 말하도록 한 후, 그 개념에 해당되는 도형이나 그림을 제시한다.

둘째, 일련의 본보기와 본보기가 아닌 것을 제시한다.

셋째, 본보기와 본보기가 아닌 것들이 혼합된 상태에서 본보기만을 변별해 내도록 요구한다.

넷째, 개념의 정의를 진술하도록 요구한다.

이러한 절차는 학생들 자신이 나름대로의 사고방식에 따라 개념, 특성, 목록들의 관계를 이해하도록 해야만 목록의 분류나 범주를 쉽게 찾아낼 수 있다. 이 수업방법은 감상유형 중 관찰법과 유사한 작품감상 방법이다.

#### <표 III-5> 개념 수업모형 적용계획

문제 제기	분석	분류하기	정의 진술	확인학습	평가
서로 비교되는 작품 등 보여 준다.	조형요소, 조형원리의 특징을 찾는다.	유사한 작품끼리 모아서 분류한다.	분류된 작품에 대해 정의해 준다.	다른 작품을 보여주며 확인한다.	감상 능력과 수업 태도를 평가한다.

교육인적자원부(2005)에서는 미적체험 및 감상 활동 영역에 대한 수업 과정으로 준비단계, 전개 단계, 정리 단계로 제시하고 있다.

· 준비 단계 : 학습 목표를 안내하고 관련 자료를 관찰하고 판단하는 과정을 통해 학습자가 체험한 것을 발표하고 토론하도록 유도한다. 자연물이나 미술품을 감상할 때 유의점이나 감상의 관점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며, 관찰지나 감상지



를 구상해 보도록 한다.

- 전개 단계 : 감상 관점에 유의하면서 자연물이나 조형물 등 주변 환경에서 체험한 내용에 대해 생각하고 발표하도록 한다. 미술품의 표현 내용과 방법 및 재료와 용구, 조형 요소와 원리 등을 찾아내고 비교하여 설명하도록 한다. 관찰지, 감상지 또는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다른 양식으로 표현해 보도록 한다. 감상 능력 및 태도와 학습자의 성취 정도를 확인한다.
- 정리 단계 : 학습자들이 기록한 관찰지, 감상지 또는 보고서를 발표하거나 제출하고, 학습자들의 학습 활동에 대해 학습자가 스스로 검토하고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자기 평가서를 활용하거나 도는 수업을 기록한 자료를 보며 토론하도록 한다.

### 3. 미술 감상 교수-학습 자료 개발 절차

감상 교수-학습 자료 개발은 박휘락(1999)이 제시한 ‘셀프가이드 제작기법’의 절차를 이용하였다.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 ① 감상 지도의 목표와 관점의 설정

본시 지도 목표와 감상 작품에 관한 감상 관점이 명확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감상 단원의 학습 목표가 구체적이고 명확할수록 자료도 구체적으로 제공되며, 감상 관점을 학습목표에서 추출하거나 가장 근접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 ② 목표와 관점에 맞는 대상 작품의 선정

감상 지도의 목표와 관점이 설정되었으면 여기에 맞는 대상 작품을 여러 가지 미술 자료에서 찾아 선택한다. 교사들은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뿐만 아니라 화집, 인터넷 자료, 엽서 등을 찾아 선택한다.

#### ③ 선정 작품과 작가에 대한 연구

작품에 대한 해설이나 작가에 대한 약력, 전기, 에피소드 등을 연구한다. 이때 작품의 내용과 주제, 조형적, 미적 특질, 시대 양식, 역사적 배경 등도 함께 연구해야 한다.

#### ④ 감상 교수 학습 자료의 구체적 내용과 질문의 작성

설정된 목표와 관점에 따라 어떤 내용의 설문을 할 것인가 결정한다. 설문의 내용이나 문장의 난이도 등을 학년에 맞게 고려해야 한다. 한 문장에 여러 개를 묻는 식의 문장은 피하고 간단하고 명료한 것이 좋다.

⑤ 형식과 제작 기법 결정

어떤 형식으로 제작할 것이며 또한 어떤 기법을 적용할 것인지 연구한다. 제작 기법이 학생들에게 흥미를 불러일으키도록 참신하고 매력적인 것이 되도록 연구하여야 한다. 제작 기법에는 설문에 답 쓰기, 스케치 해보기, 만화를 이용하기, 비교하기, 상상의 이야기 꾸며보기, 작품의 내용을 묘사하기, 작가 소개하기 등이 있다.

⑥ 초안 작성과 검토

설문과 기법이 채택되었으면 가이드의 초안을 작성하고 재검토하여 제작·완성시킨다.

⑦ 인쇄와 복사

⑧ 감상 학습에 적용

## IV. 4학년 교육과정의 이해

### 1. 제7차 초등학교 미술과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인적자원부(2005)에서 미술과 교육과정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미술 교과 교육은 다양한 미술 활동을 통하여 주변 세계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향유할 수 있는 심미적인 태도와 상상력, 창의성, 비판적인 사고력을 길러 주고, 아울러 미술 문화를 이해하며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전인적 인간을 육성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즉, 미술 교과 교육에서는 첫째, 생활에서 미적 대상을 발견하고 느낄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정서를 풍부하게 해 주며, 미술을 생활화할 수 있는 적극

적인 자세를 가지도록 한다.

둘째, 동기 유발을 통해 나타내고자 하는 욕구를 북돋워 주고, 주제, 표현 방법, 조형 요소와 원리, 재료와 용구 등에 관한 체계적인 탐색 활동과 능동적인 표현 활동을 통해 느낌과 생각을 창의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한다.

셋째, 미술품에 대한 개인적인 반응이나 판단을 존중하고, 창의적이며 비판적인 사고력을 가지도록 한다. 또, 역사적, 문화적 맥락에서 미술을 이해하고 애호하는 태도를 가지게 하며, 전통 미술에 대한 자긍심을 길러 미술 문화 창조에 기여하도록 한다.

## 2. 제7차 초등학교 미술과 교육과정의 내용

미술 교과목의 내용은 교과목의 특성과 학생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다음 표와 같이 ‘미적 체험’, ‘표현’, ‘감상’으로 이루어진다.

<표 VI-1> 초등학교 내용체계

영역	3, 4학년	5, 6학년
미적 체험	<p><b>자연미 발견</b> 자연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과 형의 아름다움을 찾아본다.</li> <li>· 색의 아름다움을 찾아본다.</li> </ul> <p><b>조형미 발견</b> 주변의 조형물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과 형의 아름다움을 찾아본다.</li> <li>· 색의 아름다움을 찾아본다.</li> </ul>	<p><b>자연미와 조형미의 특징 이해</b> 자연과 조형물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과 조형물의 아름다움을 비교한다.</li> <li>· 자연과 조형물의 형과 색에서 변화를 발견한다.</li> </ul> <p><b>자연과 조형물의 관계 이해</b> 생활에서 자연과 조형물의 특징을 발견하고, 그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의 특징을 살린 조형물을 찾아본다.</li> <li>· 자연과 조형물의 조화를 발견한다.</li> </ul>

표 현	<p><b>주제 표현</b> 주제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본 것, 느낀 것, 상상한 것을 나타낸다. · 모양과 쓸모를 생각한 것, 환경에 필요한 것을 나타낸다. · 평이한 한글로 나타낸다.</p> <p><b>표현방법</b> 평면과 입체의 특징을 알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 평면화 입체의 특징을 알고, 기본적인 표현방법으로 나타낸다. · 판본체로 쓴다.</p> <p><b>조형 요소와 원리</b> 조형 요소와 원리를 알고 표현할 수 있다. · 형, 색, 질감, 동세, 양감 등을 생각하여 나타낸다. · 점획의 길이, 방향 등을 익혀서 쓴다.</p> <p><b>표현 재료와 용구</b> 재료와 용구의 기본적인 사용방법을 알고 표현할 수 있다. · 여러 가지 재료의 성질을 알고 나타낸다. · 용구의 기본적인 사용방법을 알고 바르게 사용한다.</p>	<p><b>주제 표현</b> 주제의 특징을 생각하여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 · 본 것, 느낀 것, 상상한 것을 나타낸다. · 모양과 쓸모를 생각한 것, 환경에 필요한 것을 나타낸다. · 평이한 한글로 나타낸다.</p> <p><b>표현방법</b> 평면과 입체의 특징을 생각하여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 · 평면과 입체의 특징을 알고, 여러 가지 표현방법을 탐색하여 나타낸다. · 판본체, 궁체로 쓴다.</p> <p><b>조형 요소와 원리</b> 조형 요소와 원리를 알고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 · 형, 색, 질감, 동세, 명암, 양감, 공간 등을 생각하여 나타낸다. · 문자의 짜임새, 점획의 변화 등을 익혀서 쓴다.</p> <p><b>표현 재료와 용구</b> 재료와 용구의 특성을 탐색하여 표현할 수 있다. · 여러 가지 재료의 성질을 살려서 나타낸다. · 용구를 사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알고 활용한다.</p>
--------	---	--

### 3. 제7차 교육과정 4학년 미술 감상 영역 분석

#### 가. 각 단원별 목표

초등학교 4학년 각 단원별 목표는 다음과 같다.

<표 VI-2> 각 단원의 목표

단원	단원목표
1. 자연의 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변의 자연과 미술 작품을 관찰하여 계절 변화의 특징을 이해한다.</li> <li>· 계절의 특징을 살려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li> <li>· 주변의 자연 환경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느끼는 데 관심을 가진다.</li> </ul>
2. 움직이는 선과 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 주변이나 미술 작품에서 다양한 선과 형의 움직임을 발견할 수 있다.</li> <li>· 음악이나 소리를 듣고 그 느낌을 여러 가지 선으로 표현할 수 있다.</li> <li>· 여러 가지 재료를 활용하여 대상의 움직임을 평면과 입체로 표현할 수 있다.</li> <li>· 움직이는 대상에서 다양한 선과 형을 발견하는 데 관심을 가진다.</li> </ul>
3. 상상의 세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품 감상을 통해 상상의 세계를 폭넓게 이해한다.</li> <li>· 여러 가지 상상의 세계를 평면이나 입체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li> <li>· 표현 방법에 어울리는 재료와 용구를 선택하여 표현할 수 있다.</li> </ul>
4. 색의 느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과 조형물에서 비슷한 색과 반대색의 배색을 찾아보고, 특징을 이해한다.</li> <li>· 비슷한 색과 반대색의 느낌을 살려 여러 가지 모양을 독창적으로 꾸밀 수 있다.</li> <li>· 경험이나 생각한 것에서 느낌을 강조하여 어울리는 색으로 표현할 수 있다.</li> <li>· 자신의 표현 의도를 분명하게 발표하고, 감상을 통해 다른 작품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진다.</li> </ul>

5. 판을 이용한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판화의 여러 가지 특징을 이해한다.</li> <li>· 조각칼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li> <li>· 판화의 특징을 살려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li> <li>· 서로의 작품을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를 가진다.</li> </ul>
6. 판본체로 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판본체의 글자 모양과 그 짜임새를 이해한다.</li> <li>· 가로획과 세로획, 꺾은 획을 익혀서 판본체로 ‘부모’를 쓸 수 있다.</li> <li>· ‘ㅇ’의 쓰는 법을 익혀서 판본체로 ‘우리’, ‘하루’를 쓸 수 있다.</li> <li>· 비스듬한 획을 익혀서 판본체로 ‘바다 소리’를 쓸 수 있다.</li> <li>· ‘ㅅ’과 ‘ㅎ’의 변화를 익혀서 판본체로 ‘시내 호수’를 쓸 수 있다.</li> <li>· 서로의 작품을 감상하면서 글자의 모양과 짜임새에 관하여 이야기 할 수 있다.</li> <li>· 재료와 용구를 바르게 다루며, 차분한 마음으로 정성껏 붓글씨를 쓰는 바른 태도를 가진다.</li> </ul>
7. 조형의 아름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 주변의 조형물을 통해 생활을 아름답고 쾌적하게 해 주는 미술의 역할에 관하여 이해한다.</li> <li>· 여러 가지 미술품의 사진이나 자료를 수집하여 감상하고, 미술 감상 자료집을 만들 수 있다.</li> <li>· 미술품을 아끼고 보호하는 태도를 가진다.</li> </ul>
8. 재미있는 표현	<p>자기의 생각이나 느낌을 나타내는 다양한 표현 방법을 이해한다. 다양한 재료와 용구를 창의적으로 활용하여 재미있게 표현할 수 있다.</p> <p>재료와 용구를 소중히 다루고 보관하는 습관을 가진다.</p>
9. 그릇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릇의 쓰임과 미적인 형태의 필요성을 이해한다.</li> <li>· 그릇을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이해한다.</li> <li>· 찰흙으로 재미있는 모양의 그릇을 만들 수 있다.</li> <li>· 조상들이 사용하였던 그릇의 특징과 우수성에 관심을 가진다.</li> </ul>
10. 놀이터와 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놀이터와 공원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의 기능과 아름다움에 관하여 안다.</li> <li>· 새로운 아이디어의 놀이터와 공원을 다양한 재료와 용구로 꾸밀 수 있다.</li> <li>· 주변의 환경이나 시설을 개선하고 보존하려는 태도를 가진다.</li> </ul>

11. 마크와 표지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크와 표지판의 필요성을 알고 그 활동 방법에 관하여 이해한다.</li> <li>· 아름답고 목적과 기능에 맞는 창의적인 마크와 표지판을 만들 수 있다.</li> <li>· 평소에 주변의 마크나 표지판들을 관심 있게 살펴보고, 자료로서 수집하고, 활용하는 태도를 가진다.</li> </ul>
12. 우리나라 미술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나라 미술품의 여러 가지 종류를 이해한다.</li> <li>· 우리나라 미술품을 보고 느낀 점을 표현할 수 있다.</li> <li>· 우리나라 미술품에 관한 증거와 아끼고 보호하려는 태도를 가진다.</li> </ul>

#### 나. 4학년 교과서 감상 작품

4학년 교과서에 제시된 감상 작품을 다음과 같다.

##### <표VI-3>교과서 감상작품

1.자연의 색	추경	비단에 채색, 1970 김은호(1892~1979, 한국) 김은호는 미인도, 신선도, 화조도 등을 화려하고 세밀한 전통 화법과 일본의 채색 기법, 서양화의 기법까지 두루 섭렵하여 표현하였다. 추경은 안정된 구도의 아름다움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지중해의 풍경	수채, 60×73cm 뒤피(1877~1953, 프랑스) 뒤피는 인상파, 입체파의 영향을 받으면서 밝은 색채와 경쾌한 리듬에 의한 독자적인 화풍을 확립한 작가이다. 그의 작품은 크게 색면의 구획을 만들고 그 위를 선묘로 경쾌하게 꾸며 가는 수법으로, 특유한 음악적 리듬을 특징으로 한다. 이 작품은 뒤피의 상형성이 유감없이 발휘된 걸작으로 열대 나무를 가벼운 선묘로 처리하고, 그 뒤 푸른빛의 바다를 시원하게 표현하고 있다. 뒤피는 유화의 불투명성을 고민하다가, 투명명한 것에 대한 동경을 수채화로 나타내게 되었다고 한다.

1. 자연의 색	잔 다르크의 거리	<p>유채, 59×84cm, 1934년  위트틸로(1883~1955, 프랑스)</p> <p>위트틸로는 눈 풍경을 많이 그린 작가이다. 흰 눈의 색채는 쌓인 눈이 지니고 있는 수분과 윤기 때문에 한층 아름답고 선명하게 보인다. 잔 다르크의 거리에서는 거리의 밝게 빛나는 흰 눈과 대조적인 겨울의 스산한 모습을 앙상한 나뭇가지와 회색빛의 하늘에서 찾을 수 있다.</p>
	춘난수조	<p>수묵 담채, 63×67cm  노수현(1899~1978, 한국)</p> <p>화면에 산봉우리들이 가득한 전면 구도로 온 산에 가득 찬 듯한 붉은 진달래(또는 철쭉)가 무수한 우점들에 의해 골짜기와 바위를 휩싸면 만발해 있다. 입체성이 더욱 드러나게 호분을 곁들여 꽃잎에 음영을 주었다. 앞쪽 어귀(水口)의 바위 위에는 새잎이 눈부시게 돌아난 버들가지가 늘어져 있고, 그 아래 물 위로 솟은 바위에 상투를 튼 한 사람이 낚시를 드리우고 앉아 있다. 물고기를 낚느니보다 따스한 봄날(춘애)의 만발함을 낚는 것 같다.</p>
2. 움직이는 선과 형	수렵도	<p>무용충 벽화, 삼국 시대 고구려</p> <p>인물 풍속도로 우리 민족의 늙름하고 씩씩한 기상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이다.</p>
	꽃창살	<p>조선 시대</p> <p>김제의 금산사에 있는 꽃창살이다. 사방 연속 무늬로 새겨진 꽃무늬로 우리 나라 곳곳의 사찰에서 볼 수 있다.</p>
	끝없는 리듬	<p>유채, 각 150×45cm  들로네, 로베르(1885~1941), 프랑스</p> <p>1930년대부터 들로네, 로베르는 ‘끝없는 리듬’ 연작을 통해 음악적 리듬, 현대 기계 문명의 속도감과 움직임을 기하학적인 추상 형태로 전개시켰다. 들로네는 기하학적 형태에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리듬을 통해 추상의 힘, 생명감을 표현하길 원했다. 리듬을 형태에서 발산될 뿐 아니라 색채와도 깊이 관계된다.</p>



2. 움직이는 선과 형	여	<p>철, 높이 33.5cm          김찬식(1926~1997), 한국</p> <p>1950년대 초기의 김찬식은 인체를 선과 볼륨, 최소한의 형태만으로 단순화시켜 인체의 오목한 부분과 볼록한 부분이 만들어 내는 비례와 질서의미를 추구했다. 후기로 갈수록 그의 작품 형태는 더욱 단순화되고 감각적인 방향으로 발전하여 감성적인 추상 조소의 한 표본을 보여 주었다.</p>
3.상상의 세계	민화	<p>수묵 담채, 58.3×34cm          작가 미상, 조선시대</p> <p>작가 미상인 조선 시대의 작품으로 토끼가 방아 찧는 상상의 모습을 그렸다. 민화의 색은 푸른색, 붉은색, 검은색, 흰색, 노란색으로, 다섯 가지의 조화와 변화는 무교와 5행 사상에서 유래했으며, 회화적인 원칙 외에 철학적인 뜻도 담겨 있다. 이런 색깔은 아주 오랜 옛날의 고구려 고분 벽화와 어린이, 여인들의 옷 색깔, 색동 등에 그대로 나타나 있으며, 색상의 대비와 조화, 균형과 비례는 상식과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힘든 멋을 내고 있다.</p>
	나와 마을	<p>유채, 192.2×151.6cm, 1911년          샤갈(1887~1985, 러시아→프랑스)</p> <p>이 작품은 화면을 원·삼각·사각으로 서로 겹치게 구성한 점이 입체파의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 준다.</p> <p>흰 소와 그림 속의 나는 하나의 원 안에서 사람끼리 대화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소의 눈은 다정스러운 사람의 눈처럼 표현되어 있다. 나와 소, 그리고 주위에 있는 회상의 마을의 이미지가 동화의 세계와 같이 자유롭게 전개된다.</p> <p>이 작품을 통해 실제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은 무엇인지 찾아보고, 이야기를 만들어 보게 한다.</p>
4. 색의 느낌	왕의 슬픔	<p>과슈, 292×386cm, 1952년          마티스(1969~1954, 프랑스)</p> <p>인물과 악기, 배경 등을 단순화된 형태로 표현하고, 단순한 색의 배치에 의해 화면을 구성하였다. 비슷한 색의 배색으로 주변을 안정시키고 반대색의 배색으로 주제를 강조하였다. 마티스는 말년에 색종이를 이용해서 이러한 효과의 작품을 제작하기도 했다.</p>

4. 색의 느낌	휴식	<p>유채, 33×21cm, 1960년 박수근(1914~1965, 한국)</p> <p>비슷한 1~2가지 색으로 표현하여 매우 조용하고 간결하며, 쓸쓸한 느낌을 주기도 한다. 단색조의 일관된 박수근의 작품은 여러 가지 색을 사용하여 눈에 띄게 하는 자극적인 효과나 기교보다는 보는 사람을 편안하고 정겹게 하는 친근감이 느껴지는 색조를 사용하고 있다.</p>
6. 판본체로 쓰기	연적	<p>2.0×4.8×6.3cm, 조선 시대</p> <p>전체적으로 기품 있고 단정한 느낌을 주는 직육면체 모양의 연적이다. 옆면에 수도(水道)가 튀어나와 있고, 윗면 중앙에는 수구(水口)가 있다. 질은 청화선으로 매화 가지를 그리고, 안에 농담을 적절히 구사하여 색을 칠하는 방식으로 간결하게 그려졌다. 몸 전체의 백색과 그림에서 청색이 대비를 이룬다.</p>
	엑스포 다리	<p>대전 광역시 소재</p> <p>‘새로운 도약의 길’을 주제로 1993년 8월 7일부터 11월 7일까지 93일 동안 열린 대전 엑스포 공원의 엑스포 상징탑과 광장을 연결하는 다리로 갑천에 건설한 현수교이다. 2600여 톤의 강재가 소요된 엑스포 현수교는 태극을 상징이나 하듯 빨간색과 청색이 교차되고, 수학적으로 계산되어 구성된 듯한 선의 아름다움이 돋보인다.</p>
8. 재미 있는 표현	‘장영실’	<p>혼합 재료, 1990년 백남준(1932~, 한국→미국)</p> <p>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비디오 아트 작가 백남준의 작품이다. 비디오 아트는 백남준에 의해 1960년대 후반에 등장하여 70년대부터 성행한 예술로, 퍼포먼스를 기록하는 것에서부터 테크놀로지의 예술적 가능성의 추구로 비디오가 표현 매체로서 성행하게 되었다. 옛 우리 과학자와 우리의 부채, 그리고 곡식의 양을 재는 도량 형기인 말을 통해 동양적 사유 공간을 나타내는 ‘장영실’이란 작품에서 볼 수 있듯이, 백남준의 작품 세계는 한 마디로 서양적 하드웨어와 동양적 소프트웨어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다.</p>

8. 재미 있는 표현	일사귀의 버릇	<p>(프로타주, 42.7×26cm, 1925년)  에른스트(1891~1976, 독일→프랑스)</p> <p>독일 초현실주의 작가 에른스트의 작품이다. 그는 여러 가지 물체 위에 종이를 놓고 연필로 문지름으로써 형태를 발견해 내는 프로타주(문지르기) 기법을 고안하였다. 명상적이고 환각적인 능력을 강화시키는 이 기법은 나뭇잎, 형질 조각 등 모든 종류의 다른 재료에도 다채롭게 적용되었다. 에른스트는 그의 작품에서 초현실주의적 꿈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이러한 기법을 잘 활용하였다.</p>
9. 그릇 만들기	청화 백자 초화 칠보 문 명기 일과	<p>조선 시대 16세기 말~17세기 초, 높이 4.8~7.4cm  조그마한 그릇을 만들어 무덤에 부장하는 풍습은 조선 초부터 있었다. 이 일괄 유물도 무덤에 피장자와 함께 부장되었던 명기류로서, 「만력년제」라는 명문을 가지고 있어 16세기 말 ~17세기 초의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모양은 견상·주자·병·향로·단지·대접 등 가지각색이며 칠보문·초화문·추초문과 함께 문양의 주조를 이루고 있다.</p>
	현대 그릇과 화분	<p>전체적인 주전자나 찻잔의 모양이 단순하고, 주구나 손잡이의 모양도 쓰임에 잘 어울린다. 주전자의 몸체가 기울어져 있어 동적이고 세련된 느낌을 준다. 추상적인 무늬는 단순한 형태와 잘 어울리고 매우 현대적이며 전체적으로 통일감을 준다.</p>
12. 우리나라 미술품	천마도	<p>자작나무 껍데기에 채색, 56×75cm, 삼국 시대 신라  경상북도 경주시 천마총에서 출토된 5세기 말의 마구 장비의 장식화로 자작나무 껍데기에 백마와 인동당초문을 채색, 표현하였다.(국보 제 207호)장니란, 말의 양쪽 배를 가리는 가리개로 흠이나 먼지를 막는 것 외에 장식물로도 사용되었다.</p> <p>천마도는 천마총 출토품 가운데 가장 세상을 놀라게 한 유품인데, 자작나무 껍데기를 여러 겹으로 겹쳐서 누빈 위에 하늘을 나는 천마를 능숙한 솜씨로 그렸다. 이것은 지금까지 회화 자료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던 고 신라의 유일한 미술품이라는 데 큰 뜻이 있다. 이 고분의 명칭을 천마총이라고 한 것도 여기에 연유한 것이며, 지금은 이러한 것들을 볼 수 있도록 무덤 내부를 복원하여 공개하고 있다.</p>

12. 우리나라 미술품	수박과 들 쥐	<p>수묵 담채, 34×28.3cm</p> <p>신사임당(1504~1551, 조선 시대)</p> <p>신사임당은 조선 초기의 문인 화가로서, 시·서·화 삼절(三絶)로 알려진 석학 이율곡의 어머니이며, 회화에 있어서는 특히 초충도(草蟲圖)를 잘 그렸다. 극히 섬세하게 표현된 이 초충 시리즈들은 여류로서 그가 도달한 정화(精華)의 경지를 엿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 회화사에도 중요한 의의를 지닌 장르를 보여 준 것이라 하겠다. 몇 점의 산수화가 남겨져 있고, 초서(草書), 묵매(墨梅), 포도 등에도 뛰어났으며, 딸 매창(梅窓) 역시 여류 화가이다.</p> <p>‘수박과 들쥐’는 시골 수박밭에서 볼 수 있는 것을 소재로 하여 그렸는데, 너무나도 섬세하게 그려 사진을 찍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p>
	석굴암 본존상	<p>화강암, 높이 326cm, 통일신라 시대</p> <p>석굴암 본존상을 그 종교성과 예술성에 있어서 세계의 종교 예술사상 탁월한 유산이다. 특히, 간다라 식의 어깨선, 두 팔과 두 손, 가부좌를 한 두 다리와 무릎 등이 인공적인 부자연스러움 없이 생명력을 부드럽게 표현하고 있다.</p>
	경복궁 근정전	<p>사적 제117호. 서울 특별시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조선 시대의 정궐로 이성계와 역성 혁명 지지자들에 의해 1395년 9월에 낙성을 보게 되었는데, 궁내에 준성된 전각은 총 390여 칸이었다.</p> <p>궁성에는 동쪽에 건춘문, 서쪽에 영추문, 정남쪽에 광화문, 북쪽에 신무문을 세웠고, 임금이 정사를 보던 근정전은 남북이 길고 동서축이 짧은 직사각형 터전에 조성하였다.</p> <p>경복궁은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 모두 소실된 후 여러 임금이 중건을 하려고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다가 1865년 4월 2일 흥성 대원군의 건의를 받아들여 경복궁의 중건을 하명하여 1868년 6월 10일 재건 공사가 끝났다. 다시 일제시대 때에 많은 전각들이 철거되어 현재 복원 사업 중에 있다.</p>

12. 우리나라 미술품	청자 칠보 투각향로	<p>고려 12세기, 높이 15.3cm, 국보 95호</p> <p>특이한 형태와 담록의 비색류, 그리고 정교한 조각 솜씨가 조화된 일품 향로로, 칠보문을 중첩하여 구형으로 투각한 뚜껑과 활짝 핀 국화를 표현한 동체, 세 마리의 웅크린 토끼가 받치고 있는 능화형의 대 등 3단으로 구성되어 있다.</p> <p>뚜껑에는 칠보문이 겹쳐지는 중심에 원점을 백상감 장식하고 동체의 국화잎은 정교한 양각과 음각 기법으로 엽맥을 표현하였으며, 두 귀를 뚫듯 세운 토끼의 눈에는 흑점이 찍혀 있다.</p> <p>각각의 시문 기법이 도드라져 보이지 않으면서도 전체적인 어울림이 완벽해, 화려하고도 기품 있는 정취가 흠뻑 풍긴다.</p>
--------------------	---------------	--

#### 다. 감상 교수·학습 자료의 문제점

감상 교수·학습 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4학년 교과서와 지도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감상 방법이나 예시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

1단원을 예를 들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문이 구성되어 있다.

- 작품에서 사용된 색에 관하여 이야기해 봅시다.
- 어떤 계절을 표현하였습니까?
- 계절이 다르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 작품에 관한 느낌을 써 봅시다.

교육부(2005)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감상 영역의 지도상의 유의점에는 작품에 대한 기초적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감상 관점이 선정하여 활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교과서에 제시된 감상발문의 경우 사고가 확대되지 못하는 한정적인 질문이다. 조형 요소 및 미적 구성 원리에 대한 유도적이고 다양한 발문이 부족하다.

둘째, 감상 방법을 익히기 위한 수업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4학년은 롯데스가 제시한 발달 단계에서 3기에 속하는 시기로 이 시기의 아동

들은 자기 표현 능력을 자각하며 평가능력이 발달하는 시기이다. 아동들이 감상 방법을 익힘으로써 감상능력은 더욱 발달될 수 있다.

셋째, 미술품을 해석하고 서술하기 위한 용어에 대한 지도내용이 부족하다. 감상은 마음속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미술용어에 대한 지도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감상’을 위한 단원구성이 아닌 ‘표현’영역에 중점을 둔 단원구성 형태를 띄고 있다. 7차 교육과정에서는 미술과의 목표인 심미적인 태도와 상상력, 창의성, 비판적인 사고력을 기르고 아울러 미술 문화를 이해하며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전인적 인간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미적 체험’과 ‘감상’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감상’을 위한 ‘표현’이 아닌 ‘표현’을 위한 ‘감상’활동으로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실정이다.

다섯째, 감상방법의 다양성이 부족하다.

감상을 하는 방법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 비교감상, 세부감상과 전체감상, 작가 연구, 문예법을 이용한 감상 등 다양한 감상방법이 있다. 교과서에는 학습 목표와 내용에 맞는 감상방법이 아닌 일률적인 감상수업의 형태를 제시하고 있어 감상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있다.

현재 교과서와 지도서에 제시된 감상 단원의 교수 학습 자료만을 가지고서 감상 학습이 자기 주도적 학습이 되지 못하며 아동들의 흥미를 끌기도 어렵다. 또한 제일 중요한 점인 아동의 감상능력을 기르기에에도 부족함이 많다.

## V. 미술 감상 교수 학습 자료 개발의 실제

교수 학습 자료는 교수 학습 과정안과 감상학습지를 개발하였다. 교수 학습 과정안은 학습목표와 내용을 지도하기에 알맞다고 생각되는 교수학습모형을 선택하여 적용하였다. 교수 학습 자료는 박휘락(1999)이 제시한 ‘셀프가이드 제작 기법 절차’를 활용하여 개발하였다.

## 1. 1단원 교수 학습 자료 개발

1단원에서는 자연의 색을 표현한 작품 감상수업을 거쳐 자연을 주제로 표현하는 과정으로 나아가고 있다. 1단원에서는 교과서에 제시된 네 작품을 토대로 앞서 제시되었던 비평형 학습 방법을 적용하여 교수 학습 지도안을 작성하고 교수 학습 개발 절차를 활용하여 지도안과 감상학습지를 개발하였다.

### 가. 감상 지도의 목표와 관점의 설정

자연의 색을 표현한 작품 감상의 목표는 미술 작품을 관찰하여 계절변화의 특징을 이해하도록 하며 감상 지도 관점으로 감상 작품들을 비교하고 계절의 특징에 대한 표현의 차이를 알게 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 나. 목표와 관점에 맞는 대상 작품의 선정

‘춘난수조’ (노수현), ‘지중해의 풍경’(뒤피), ‘추경’(김은호), ‘잔 다르크의 거리’(위트릴로) 네 작품을 감상 작품으로 선정하였다.

교과서에 제시된 네 작품을 대상 작품으로 선정한 이유는 교사와 모든 학생이 가장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교과서 작품이면서 사계절의 변화의 특징이 뚜렷이 잘 표현되어 있기 때문이다.

### 다. 선정 작품과 작가에 대한 연구

#### 1) 추경(김은호)

이당 김은호(1892-1979)는 인천 문학 태생으로 1906년 15세 때 스스로 서당공부를 중단하고 인천 관립 일어학교에 들어갔다. 그러나 다음해 집안이 파산하자 일어학교를 중퇴하고 인천 사립 인흥학교 측량과에 입학, 1908년에 졸업했다.

이듬해에 부친이 억울한 옥고를 치르고 쓰러지자 폐가한 집을 정리 서울 남대문 근처에 전세방을 얻어 참혹한 생활을 헤가며 일자리를 구해 다녔다. 이발소 잡역으로부터 제화공에 이어 임시 측량기사로도 다녔다. 그러다가 서울 모처 개인 저택에서 동양화 한 폭을 감상하고 충격을 느껴 화가가 되기로 결심했다.

1912년 서예가 현채씨와 문사 김교성의 소개로 당대의 대가 중 쌍벽인 안중식

과 조석진이 주도하는 경성서화미술원에 들어갔고 거기서 뛰어난 화재를 확인 시켜 교수진을 놀라게 했다. 1915년 서화미술학원 3년 과정을 이수하고 미술전람회에 세필화인 「조선의 가을을 출품하여 포상을 받고, 창덕궁의 하명으로 이왕전하의 대원사군복 차림을 완성시켜 어용화가의 영광과 명성을 획득했다.

1926년 일본 동경에 체류하여 동경미술학교 청강생이 되었으며, 제국미술전에 출품 전통화가로서 처음 입선했다. 1928년 제7회 조선미술전시회에 출품하여 특선을 했고, 같은 해 동경 동양화 회화전에 출품하여 1등상을 탔다. 1939년 남원 춘향묘의 「춘향의 像을 비롯하여 이충무공상·논개상·안중근상·엘리자베TM 여왕상을 그렸으며 1761년 제 10회 국전심사위원회 고문으로 추대되었고, 1971년 대통령장의 문화훈장을 받았으며, 1965년 3·1 문화상 본상을 수상했고, 1966년 대한민국 예술회 회원으로 추대되었다.

김은호는 남원에 있는 춘향사단과 진주의 논개 사당 등 곳곳의 영정도 많이 그렸다. 산수화는 채색위주의 산수화를 주로 그렸다. 미인도, 신선도, 화조도 등을 화려하고 세밀한 전통화법과 일본의 채색 기법, 서양화의 기법까지 두루 섭렵하여 표현하였다. 이당 예술의 특징은 북화와 남화 어느 한쪽에 구속됨이 없이 그 양면을 모두 흡수하고 조화시켜 자신의 독자적인 회화 양식으로 발전시킨 데 있다. 북화는 북종화라고도 하며 원래는 화풍을 살린 채색위주의 화법이고 남화는 남종화로 간결하고 온화한 화풍으로 수묵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단군 문인화나 문자 문인화가 있다. 또한 인물 화조 등을 화려한 채색으로 정교하게 그리는 채색화가였다. 그는 ‘미술은 곧 인공적인 자연물을 그대로 표현하는 기교이며 그 기교가 완벽한 연후에 비로소 예술적 진미를 갖들이는 것이다’라는 자신의 예술관을 말한 적이 있다. 이것은 남화의 상(想)보다 북화의 기(伎)를 더 존중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북화가 발달하고 후에 남화가 나왔으며, 동양화는 북화를 장려 하면 발달하고 남화를 장려 하면 퇴보한다’는 말을 통해 동양화에 근본적인 그림이 없이 문인화에만 치우치는 세태를 지적하기도 하였다.

‘추경’은 가을의 단풍든 산의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으며 붉은 색과 주홍색과 녹색이 잘 조화되어 있어서 우리나라의 아름다움 가을 산의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다. 가을산의 수려함과 웅장함이 화려한 채색으로 아름다운 꽃을 보는 느낌이다. 장식적인 색채와 간결하고 분명한 필선, 안정된 구도의 아름다움이 돋



보이는 작품이다.

## 2) 지중해의 풍경(뒤피)

뒤피는 인상파, 입체파의 영향을 받으면서 밝은 색채와 경쾌한 리듬에 의한 독자적인 화풍을 확립하였다. 크게 색면의 구획을 만들고 그 위를 선로로 경쾌하게 꾸며 가는 수법으로 특유한 음악적 리듬을 특징으로 한다. 열대나무를 가벼운 선율로 처리하고 그 뒤 푸른빛의 바다를 시원하게 표현하고 있다. 수채화는 그에게 있어서만은 유화의 밑그림이 아니었다. 그는 유화의 불투명성에 대한 불만을 끊임없이 키워왔다. 그 투명성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이 수채화로 나타났는데, 그 수채화의 신선한 생명력과 투명성은 순간적인 승부로 결정지어졌다. 그의 수채화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자질구레한 세부의 정확함이 아니라 전체적인 진실과 긴장감이었다. 다시 말해 순간적이고 즉흥적인 붓놀림에 의해 결정되는 시간이 그의 수채화에 투명한 생명력을 부여하는 가장 소중한 구성요소였다. 그리하여 그의 수채화는 회화라기보다 하나의 음악으로 다시 태어났다. 음악처럼 하나의 시간 예술이 된 수채화를 그렸으며 작품에는 해안의 산책길·경마장·요트 경기 등을 다룬 것이 많다. 이들은 단순화된 소묘와 대담한 색채의 조화 속에서 현실과 환상, 프랑스적 매혹과 우아성을 강하게 표현하여 보는 이에게 유쾌한 생의 기쁨을 준다. 뒤피에 있어서 소중한 것은 세부의 정확함이 아니고 전체적인 진실과 긴장감이다. 그리고 그 양상불 속에서 놀라운 만큼 신선한 음악이 태어난다. 그는 빛을 추구하는 생을 통하여 더욱 정확하게, 더욱 능률하게, 더욱 비개성적인 그림을 그리기를 소망하였다.

‘지중해의 풍경’은 여름철의 시원한 바다인 지중해의 풍경을 잘 표현하였다. 단순화된 소묘와 대담한 색채의 상, 프랑스적 매혹과 우아성을 강하게 표현하여 보는 이에게 유쾌한 생의 기쁨을 준다. 뒤피는 회화를 시간의 향수로 나타냈으며 빛을 추구하는 그림을 그렸다. 시원한 느낌이 드는 청록, 파랑, 남색 등을 많이 사용하였으며 차가운 느낌이 드는 딱딱한 선이나 바다, 열대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다. 표현기법은 수채화인데 세부의 정확함이 아니라 전체적인 진실과 긴장감을 살려 음악적으로 나타낸 특성을 가지고 있다.

## 3) 춘난수조(노수현)

우리 근대 전통 산수화 분야의 6대가 중의 한 분인 심산 노수현은 1899년 황

해도 곡산에서 출생하였다. 창덕궁 대조전(大造殿) 내전 벽화를 그리기도 하였으며, 서화협회에 참여하여 활동하였고, 국전 심사 위원과 예술원 회원으로 활동하였다. 그는 중국의 남, 북종화풍과 일본의 채색화풍이 화단을 풍미하던 시대에 조선후기의 화원풍을 고수하면서도 특유의 암골미를 바탕으로 한 전통산수화풍을 발전시켜 남다른 작품세계를 만들었다. 생애 80년 동안 엄정한 구도의 전통산수화 양식과 마치 후추알과 같은 우점준법, 나무를 그릴 때는 수준법, 바위를 그릴 때 특히 강하게 나타나는 물결준법을 중심으로 그의 특유의 원대한 이상향의 산수화풍을 완성시켰으며 특히 삼원법(고원, 심원, 평원)의 계승발전을 통하여 서양미술사조가 급격히 밀려들던 근대기, 흔들리던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한국 근대미술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춘난수조’에서 간결하고 온화한 화풍의 전통적인 남종화 산수를 구사하였다. 화면에 산봉우리들이 가득한 전면 구도로 온 산에 가득 찬 듯한 붉은 진달래가 무수한 우점들에 의해 골짜기와 바위를 휩싸며 만발해 있다. 일체성이 더욱 드러나게 꽃잎에 음영을 주었다. 앞쪽 물목 어귀의 바로 위에는 새잎이 눈부시게 돌아난 버들가지가 늘어져 있고 그 아래 물 위로 솟은 바위에 상투를 튼 한 사람이 낚시를 드리우고 앉아 있다. 봄눈이 녹아내리고 따스한 봄별이 쏟아지는 깊은 산 속에 연분홍 빛 진달래가 곱게 물들고 골짜기에 흐르는 맑은 물과 바위의 모습이 잘 표현되어 있다.

#### 4) 잔 다르크의 거리(위트릴로)

위트릴로는 파리의 몽마르트 출생으로 병원에서 대중요법으로 그에게 치료해 준 회화 제작이 계기가 되어, 독학으로 화가의 길을 걸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작품은 자기 주변의 풍경화에 그쳤으며, 그림엽서에서 베낀 것도 많았다. 그는 눈 풍경을 많이 그린 작가이다. 흰 눈의 색채는 쌓인 눈이 지니고 있는 수분과 윤기 때문에 한 층 더 아름답고 선명하게 보인다. 거리에 밝게 빛나는 흰 눈과 대조적인 겨울의 스산한 모습을 앙상한 나뭇가지와 회색빛의 하늘에서 찾을 수 있다. 위트릴로는 눈 풍경을 이전에도 그렸지만 47세가 되던 1930년경부터 갑작스럽게 많아졌다. 이 시기의 작품은 석고와 접착제를 혼합하여 사용하였으며 회색과 장미색으로 반사된 설경, 크림 빛을 띤 흰색 벽 등을 그렸다. 눈에 덮인 잔다르크의 거리는 정말 그림처럼 아름답다. 어떻게 보면 관광용 그림 같기도

하고 예술사진작품으로 착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가 그리는 건물은 화려한 것이 아니라 구석이고 골목이다. 또한 교회와 병원이다. 그는 그곳에서 아무에게도 설명할 수 없는 서민의 역사와 슬픔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려내고 있는 것이다. 이후 위트릴로는 우편엽서에 담긴 사진을 보면서 같은 모티브를 반복하는 그림을 그렸다. 오래된 파리의 거리 묘사에 흰색을 많이 사용하여 미묘한 느낌을 통하여 우수에 찬 경치를 그렸다.

#### **라. 감상 교수 학습 자료의 구체적 내용과 설문의 작성**

- 각 작품에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무엇인가요?
- 각 작품은 어떤 계절을 나타내었나요?
- 계절을 어떻게 표현하였나요?
- 작품의 소재는 무엇인가요?
- 작품의 주요색은 무엇인가요?
- 그림이 주는 느낌은 어떤가요?

#### **마. 형식과 제작 기법 결정**

비평형 수업모형으로 교수 학습 과정안을 작성하고 감상학습 방법의 하나의 비교감상법을 활용하여 감상학습지를 제작하였다.

#### **바. 제작·완성**

자료 개발의 과정을 거쳐 완성된 지도안은 다음의 <표 V-1> 그리고 감상학습지는 <표 V-2> 및 <표 V-3> 와 같다.

<표 V-1> 1단원 교수 학습 과정안

단원	1.자연의 색		
본시 주제	자연의 색을 표현한 작품 감상하기	수업모형	비평형 교수 학습 모형
학습 목표	미술 작품을 관찰하여 계절변화의 특징을 이해하고 느낌을 이야기할 수 있다.		
단계	교수·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점
생각 꺼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품의 첫인상에 대하여 말해 보세요.</li> <li>- 이 작품을 보면 무엇이 생각나요?</li> </ul>		◎사진 자료
관찰하고 이야기 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품을 보고 어떤 장면인지 그림을 그리듯이 설명하여 봅시다.</li> </ul>		
미적 요소 찾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떤 재료를 사용했나요?, 어떤 방법으로 표현했나요?</li> <li>- 제일 크고 눈에 들어오는 것은 무엇인가요?</li> <li>- 가장 많이 사용한 색은 무엇인가요?</li> <li>- 한 가지 색으로 넓게 칠한 곳은 어디인가요?</li> </ul>		◎교과서에 제시된 감상작품이 크기가 작으므로 TV 모니터를 이용하여 크게 보여준다.
주제 찾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작품은 어떤 계절을 나타내었나요?</li> <li>- 작품의 소재는 무엇인가요?</li> <li>- 작가가 표현하고자 한 주제는 뭘까요?</li> <li>- 전체적인 색채는 주제 표현과 어울리나요?</li> </ul>		
미적 가치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제 표현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나요?</li> <li>- 표현이 독창적이라고 생각되는 점은 무엇인가요?</li> <li>- 부족한 점은 어떤 것인가요?</li> <li>- 부족한 점을 어떻게 표현하고 싶습니까?</li> </ul>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도록 한다.
생각 넓히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 작가는 어느 시대의 사람일까요?</li> <li>- 작가의 생애에 대해서 알아보시다.</li> <li>- 이 그림 외에 작가의 작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li> </ul>		

<표 V-2> 1단원 감상학습지

자연의 색을 표현한 작품 감상하기 4계절의 자연의 모습을 표현한 참고 작품을 보며 계절의 특징과 느낌을 정리하여 봅시다. (            )초등학교 (    )학년 (    )반 (            )					
질문	작품	추경	지중해의 풍경	잔다르크의 거리	춘난수조
	· 각 작품에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무엇인가요?				
	· 각 작품은 어떤 계절을 나타내었나요?				
	· 계절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표현하였나요?				
	· 작품의 소재는 무엇인가요?				
	· 작품의 주요색은 무엇인가요?				
	· 그림을 보고 느낀 점을 써봅시다.				

<표 V-3> 1단원 감상학습지

네 작품 중 마음에 드는 작품을 선택하여 봅시다.

▶내가 고른 작품은 무엇인가요?

▶그 작품을 고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작품이 잘된 점은 무엇인가요?

▶내가 그린다면 어떻게 표현하고 싶습니까?

## 2. 2단원 교수 학습 자료 개발

### 가. 감상지도의 목표와 관점 설정

감상지도의 목표는 미술 작품에서 다양한 선과 형의 움직임을 발견하도록 하는 것으로 감상 지도의 관점은 미술 작품을 통하여 어떤 선과 형을 주로 사용하였는지 살펴보고 선과 형의 특징을 알아보도록 한다.

### 나. 대상 작품의 선정

- ‘꽃창살’ 조선시대
- ‘끝없는 리듬’ 들로네, 로베르
- ‘수렵도’ 삼국시대 고구려
- ‘여’ 김찬식

### 다. 선정작품과 작가에 대한 연구

#### 1) 꽃창살(조선시대)

김제 금산사 대장전의 문살로 소슬빛 꽃살문 형식이며, 문살이 교차하여 형성된 육각형의 영역 안에 꽃잎이 여섯 장의 관념적인 꽃을 새겼다. 붉은색, 푸른색, 흰색으로 화려하게 채색되었으며 같은 색의 꽃들은 일정한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사찰의 꽃 창살무늬의 주요소재는 연꽃, 모란, 매화, 국화무늬가 자주 사용되며 꽃무늬는 매우 사실적이고 섬세한 형태로 표현되거나 때로는 매우 단순하면서도 정갈한 형태로 나타나며 한 무늬가 단독으로 사용되어지기도 하고 또는 여러 무늬의 혼합형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꽃무늬가 빼곡하게 짜여져 있는 꽃살문을 보면, 그 화려한 단청과 수많은 꽃무늬들로 인해 잠시 혼란스러움을 느낄 수도 있지만, 곧 꽃살이 한 눈에 들어오게 된다.

사찰의 창살에 표현되어진 꽃무늬의 종류는 단독적이거나 또는 혼합형을 이루며 나타난다. 그러나 밑으로 기본이 되는 창살의 형태와 각각의 꽃에 모양상의 차이가 있을 뿐, 전체적인 창살의 배치는 사방연속무늬와 이방연속무늬가 규

칙적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사찰의 꽃살에서 느껴지는 조형미를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사찰에서 조형의 원리에 입각한 균형미가 보여지며 다양한 종류의 꽃들은 중앙을 중심으로 좌·우로 균제형식을 취하고 있다.

## 2) 끝없는 리듬(들로네, 로베르)

로베르 들로네는 초기에 신인상파의 그림에 관심을 가지고 색채 연구에 열중하였고 큐비즘 운동에 참가하였다. 1912년경 순수한 프리즘 색에 의한 율동적인 추상구성을 발전시켜서 오르피즘의 창시자가 되었다.

1911년경부터 형태와 색채의 동적인 조직, 단편적인 자연의 재현, 추상적인 색채며 형태 등을 어떤 리듬 속에 구성 조화시켜 동일화면 속에서 표현하였으며 그 소재는 생존하고 활동하고 있는 도시의 소음,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등이었다. 화면은 직선과 곡선으로 분할하는 면으로 구성되었고, 각 면에는 유채색을 사용하여 표현하였는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 밝고 선명한 스펙트럼의 원색이 다채롭게 사용되었다.

로버트가 표현하고자 한 주제는 첨단 기술의 사교로 화면의 사선과 디스크(disk)형의 원형은 당시에 가장 주목을 받았던 과학 기술의 업적인 에펠탑과 비행기의 프로펠러였다. 프로펠러는 인간이 하늘을 날고자 하는 꿈을 실현시켜 준 비행의 원리를 상징하는 것으로 그 시대인의 인상에 강하게 남았던 첨단 과학의 상징이었다.

그는 아내인 소니아 들로네와 함께 철도 전시관과 항공 전시관 장식을 의뢰받았는데 들로네 부부는 엄청난 규모의 작품을 계획하였다. 소니아는 철도관을 위에 여러 점의 대형 벽화를 그렸으며, 로버트는 철도관 주요 전시실 안에 있는 4개의 큰 기둥을 차지하고 높이 9m의 특유의 대형화폭 위에 철도에서 나오는 모든 것 즉 바퀴, 태엽, 신호표시판, 역내의 시계판 등 모든 것이 빙빙 돌고 있는 ‘끝없는 리듬’을 보여주는 연작을 전시하였다. 그들의 작품은 일부러 이야기 서술의 흔적 같은 것을 모두 배제한 채, 회전, 진동, 속도 등 기차의 본질적인 점만을 강조하였다.

## 3) 수렵도(삼국시대 고구려)

무용총의 ‘수렵도’는 활달하고 힘찬 고구려인의 기상을 아낌없이 보여주고 있



다. 무용총의 널 방 서쪽에 그려진 것으로, 큰 나무를 사이에 두고 오른쪽에는 소가 끄는 마차가 대기하고 있고, 왼쪽에는 사냥 장면이 전개되고 있다. 사냥 장면은 깃털이 달린 사슴과 호랑이를 쫓고 있는 모습이다. 산과 산 사이를 쫓고 쫓기는 말 탄 인물과 동물들은 매우 생동감 있게 표현되어 있어서 거친 자연 속에서 뻗어나가는 고구려인의 기개를 보여주고 있다. 발달된 표현력에 비하면 산이나 나무는 도안화되어 배경 역할만을 하고 있음이 눈에 띈다. 산은 단순히 굽고 가는 선으로 상징적으로만 표현되어 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산은 흰색, 그 다음 산들은 빨간색, 가장 멀리 있는 산들은 노란색을 쓰고 있어서 고대인들의 채색법을 알 수 있다. 또한 나무는 가지와 잎이 마치 고사리처럼 어색하게 표현되어 나무다운 맛이 없다. 이는 당시 회화에서 산수화에는 무관심했던 사실과 연결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배경의 단순화가 오히려 사냥 장면의 운동감을 더욱 활성화시키는 효과를 주고 있다. 인물 풍속도로 우리 민족의 늠름하고 씩씩한 기상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이다.

#### 4) 여(김찬식)

김찬식은 평안남도 출생으로 1950년 평양 국립 미술대학 2학년 때 동란이 일어나 월남하였으며 홍익 대학교 미술대학 조각과를 졸업하였다. 순수 작품 이외에 ‘마산 3.15의 거탑’, ‘공군 보라매탑’, ‘공군전공탑’, ‘논산 육군 용사상’ 등 기념 조각이 다수 있다.

1950년대 초기의 김찬식은 인체를 선과 볼륨, 최소한의 형태만으로 단순화시켜 인체의 오목한 부분과 볼록한 부분이 만들어 내는 비례와 질서의미를 추구했다. 후기로 갈수록 그의 작품 형태는 더욱 단순화되고 감각적인 방향으로 발전하여 감성적인 추상 조소의 한 표본을 보여 주었다.

#### 라. 감상 교수 학습 자료의 구체적 내용과 설문의 작성

- 어떤 선과 형을 주로 사용하였나요?
- 선과 형은 어떤 느낌을 주나요?
- 선과 형이 반복되었을 때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 어떻게 표현하였나요?

#### 마. 형식과 제작 기법 결정

전체 감상과 세부감상을 통해 감상작품을 감상하도록 한다. 감상 작품에서 소재 별로 줌인하여 작품의 구성 요소별로 확대, 구성하여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작품에서 표현된 여러 가지 선과 형에 관심을 갖도록 한다. 다시 전체감상을 함으로써 느끼지 못했던 리듬감을 찾아내도록 유도한다.

#### 바. 제작·완성

자료 개발의 과정을 거쳐 완성된 지도안과 감상학습지는 다음의 <표 V-4>와 <표 V-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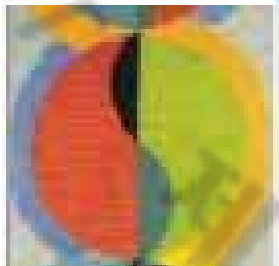
<표 V-4> 2단원 교수 학습 과정안

단원	2. 움직이는 선과 형		
본시 주제	여러 가지 선과 형 찾아보기	수업모형	통합형 교수 학습 모형
학습 목표	미술 작품과 사진 자료를 감상하고 여러 가지 선과 형을 찾아보고 느낀 점을 말할 수 있다.		
단계	교수·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점
자유 로운 탐색	<p>▶태극기 보고 사용된 선과 형을 알아본다. -주요 사용한 선은 무엇인가? -전체적인 형과 부분적인 형은 무엇인가?</p>		◎사진 자료
인도된 탐색	<p>▶작품을 감상하기</p> <p>○세부감상하기 -어떤 선을 주로 사용하였나요? -어떤 형을 찾을 수 있나요?</p> <p>○전체감상하기 -세부감상을 했을 때와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달라졌나요?</p>		◎전체작품과 작품의 일부분을 확대하여 보여준다.
표현 활동	▶선과 형을 이용하여 리듬감이 나타나게 표현하기		◎한 가지 모양도 그 크기를 달리하여 연속적으로 늘어놓았을 때, 움직임과 방향감을 느낄 수 있음을 발견하게 한다.
평가	▶친구가 꾸민 작품을 감상하고 평가하기		◎선을 이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면을 만들 수 있음을 알게 한다.
정리	▶친감상작품의 공통점 말해보기 -반복된 선과 형의 반복으로 움직임과 리듬감을 나타낸다.		

<표 V-5> 2단원 감상학습지

세부감상을 했을 때와 전체감상을 했을 때의 달라진 느낌을 적어봅시다.

( )초등학교 ( )학년 ( )반 ( )



- 세부감상과 전체감상을 하고 나니 느낌이 어떻게 달라졌나요?
- 선과 형태를 왜 반복해서 표현하였을까요?

### 3. 3단원 교수 학습 자료 개발

#### 가. 감상 지도의 목표와 관점의 설정

3단원에서는 작품에 나타나 있는 상상의 세계를 감상함으로써 재료에 대한 다양한 시도, 형태의 변형 등을 통해 상상력을 증진시키고 상상의 세계를 폭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 나. 목표와 관점에 맞는 대상 작품의 선정

- 민화, 조선시대
- 나와 마을, 샤갈

#### 다. 선정 작품과 작가에 대한 연구

##### 1) 민화(조선시대)

작가 미상인 조선 시대의 작품으로 토끼가 방아 찧는 상상의 모습을 그렸다. 민화는 일반 서민들이 스스로 자유롭게 그린 옛날의 그림을 말한다. 전문 화가들이나 양반들이 아닌 무명 화가나 떠돌이 화가, 일반 사람들에 의해 그려져 낙관이 없고, 서명이나 제목이 없다. 민화는 우리 조상들의 삶을 있는 그대로 보여 주는 옛 그림으로 꽃이나 새, 호랑이, 풍속, 불교, 유교 윤리를 주로 그리고 있고 정통 회화의 조류를 모방하여 방의 벽이나 병풍에 그리거나 민속적인 관습에 따라 제작되었던 실용적인 그림이다.

민화가 많이 그려진 시기는 서민들의 힘이 커지기 시작한 조선시대 후기이다. 일반 민중이나 서민층의 그림으로 유행하였고, 대부분이 그림공부를 본격적으로 받지 못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려졌다. 서민들의 일상생활 모습이라든지 관습 등을 주로 주제로 하였기 때문에 되풀이하여 그린 비슷한 형태의 그림이 많다. 민화는 전문 화가들이 그린 그림과는 다른 소박하고 서민적이며 순수한 느낌이 있고 그 당시의 서민 생활을 알 수 있게 하는 의미 있는 옛 그림이다.

##### 2) 나와 마을(샤갈)

마르크 샤갈은 887년 러시아의 비테프스크의 가난한 유대인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샤갈은 꿈속에서 본 것들을 그림으로 옮기곤 했으며 바이올린을 켜는 삼촌의 모습도 그렸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의 그림에 관심이 쏠지 않았다. 실제 모습과 닮은 그림은 하나도 없고, 날아다니는 사람이나 동물로 가득 차 이상하게 생각하였다. 열아홉 살 때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페네의 미술학교에 입학하였다. 샤갈을 가난한 고향을 항상 그리워하였다. 1911년, 샤갈은 프랑스 파리에서 미술공부를 하였는데 그때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그림을 그렸다. 산양의 맞은편에 산양과 이야기를 주고받는 모습처럼 자기 옆모습을 그리고 젖을 짜는 사람의 모습과 마을 풍경, 낮을 들고 들에 나가는 농부의 모습을 그리고 '나와 마을'이라는 제목을 붙였다. 고향을 아끼는 마음이 담긴 이 그림은 샤갈의 독특한 생각으로 그려졌다.

#### 라. 감상 교수 학습 자료의 구체적 내용과 설문의 작성

- 감상 작품에서 재미있게 표현된 것은 무엇인가요?
- 작품에서 실제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은 무엇일까요?
- 작품의 보고 난 느낌이 어떤가요?
- 작품을 보고 이야기를 상상하여 꾸며 봅시다.

#### 마. 형식과 제작 기법 결정

서술→분석→해석→평가의 비평의 단계를 거쳐 작품을 감상하도록 한다. 작품을 보고 이야기를 꾸며 봄으로써 작품에 대한 흥미를 갖도록 하며 이야기를 꾸밀 때 여러 가지 단어를 함께 제시하여 생각이나 느낌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한다.

#### 바. 제작·완성

자료 개발의 과정을 거쳐 완성된 지도안과 감상학습지는 <표 V-6>과 <표 V-7>과 같다.

<표 V-6> 3단원 교수 학습 과정안

단원	3. 상상의 세계		
본시 주제	작품에 나타나 있는 상상의 세계 감상하기	수업모형	비평 교수 학습 모형
학습 목표	작품 감상을 통해 상상의 세계가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알고 이야기로 꾸밀 수 있다.		
단계	교수·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점
서술	<p>▶관찰하고 이야기하기</p> <p>-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p> <p>-그림을 보고 보이는 대로 이야기를 해 봅시다.</p>		◎사진 자료
분석	<p>▶미적요소 찾기</p> <p>-재미있게 표현된 부분은 무엇인가요?</p> <p>-가장 눈에 들어오는 것은 무엇인가요?</p> <p>-시선을 끄는 색은 무엇인가요?</p> <p>-그림 속에 공간은 어떻게 나누어져 있나요?</p> <p>-그림 속에서 실제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은 무엇인가요?</p>		◎참고 작품을 통 하여 실제로 일어 날 수 없는 일들 에 관해 충분한 이야기를 하고 상 상의 폭을 넓혀 주도록 한다.
해석	<p>▶의미 찾기</p> <p>-그림이 주는 느낌은 어떠한가요?</p> <p>-작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이 그림을 그렸을까요?</p> <p>-작품의 주제는 무엇일까요?</p> <p>-작가의 생애에 대하여 알아보시다.</p>		
평가	<p>▶판단하기</p> <p>-주제 표현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나요?</p> <p>-이 그림을 여러분이 그린다면 어떻게 표현하고 싶나 요?</p>		

<표 V-7> 3단원 감상학습지

<p>상상의 세계를 이야기로 꾸미기</p> <p>(            )초등학교 (    )학년 (    )반 (            )</p> <p>샤갈의 ‘나의 마을’을 그림을 감상해보았습니다. 아래 낱말들을 섞어서 이 그림에 어울릴 만한 이야기를 지어 보세요.</p>						
초록색 나무	파란 애기 붉은 색	산양 옆모습 꿈	농부 원 꿈	마을 은방울 십자가를	낮 거꾸로 단	젖을 짜는 여자 반지 교회 집 눈



## 4. 4단원 교수 학습 자료 개발

### 가. 감상 지도의 목표와 관점의 설정

색은 조형 활동에서 표현의 중요한 수단이라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상반된 배색의 작품 감상을 통해 배색의 특징을 이해하고 배색에 의한 느낌을 이야기할 수 있게 한다.

### 나. 목표와 관점에 맞는 대상 작품의 선정

- '왕의 슬픔' 마티스
- '휴식' 박수근

### 다. 선정 작품과 작가에 대한 연구

#### 1) 왕의 슬픔(마티스)

이 작품은 채색 종이를 오려 붙이는 콜라주 기법을 이용했다. 마티스는 색종이 그림을 통해 간결하고 명확한 그리고 대범한 구획 속에서 고전적이라 할 만큼의 질서감과 절도감을 보여준다. 인물과 악기, 배경 등을 단순화된 형태로 표현하고 단순한 색의 배치에 의해 화면을 구성하였다. 비슷한 배색으로 주변을 안정시키고 반대색의 배색으로 주제를 강조하였다.

20세기에 들어오면서 마치 광기 어린 야수의 울부짖음처럼 원색을 대담하게 사용한다거나 형태의 극단적인 자유스러움을 보이는 일단의 그룹이 나타났는데 마티스를 중심으로 하여 마르케, 뒤피, 브라크 등의 화가가 바로 그들이다. 이들은 기존의 자연주의적 묘사로부터 크게 벗어나고자 하였고, 고흐의 정열과 고갱의 장식성을 승계하였다. 때문에 각자의 개성이나 성격을 너무 강조하여 오히려 문제점이 될 정도였는데 오히려 그런 문제들이 그 이후에 미술에서 더욱 추구 되는 까닭에 현대 미술사에 중요한 획이 되었다.

마티스는 “사람을 불안하게 한다든가 마음을 무겁게 하는 따위의 주제는 생각하지 않는다. 균형과 순수와 고요함의 예술, 모든 두뇌 노동자들, 가령 비즈니맨이나 문필가에게도 하나의 진정제와 같은 예술, 그래서 육체적인 피로를 풀어주는 것이 안락의자라고 한다면 예술이란 바로 그런 안락의자에 해당하는 것이

다.”라는 생각으로 자신의 작업을 진행시킨 사람이다.

피카소가 여인이 바뀔 때마다 그림이 바뀌었다고 하듯이 마티스는 여행을 통하여 그의 그림을 변화시켜 갔다. 친구인 가스톤 딜에게 “나에게 있어서 계시는 언제나 동방에서 찾아오는 것이야……”라고 말하는 마티스는 이국 정서를 느끼기 위하여 동방 세계로의 동경과 관심을 갖는다.

1910년 가을, 친구인 마르케와 함께 독일 여행을 하던 중에 뮌헨에서 이슬람 미술전을 보고 동방에 대한 동경을 더욱 굳히던 그는 스페인으로 가서 그 해의 겨울을 나고 일단 파리에 되돌아왔으나, 여름에는 프랑스 남부의 콜리우르로 가고 11월에는 그의 작품의 애호가였던 시추킨의 초대를 받아서 일부러 모스크바까지 갔다. 그리고 연말에는 재차 남쪽을 향해 로르코까지 다리를 뻗쳐 마침내 탄자르 해를 넘겼다.

마티스는 1910년에서 1912년에 걸쳐 정신이 없을 정도의 여행을 한다. 그의 내부에 무언가 새로운 것을 찾는 강한 욕망이 있었음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그는 하나의 색은 그냥 보통의 그림 물감에 지나지 않지만 배색되는 두 개 이상의 색은 생명력을 갖게 된다는 것을 알고, 가위를 들고 색종이를 오려붙여 가면 그 관계를 보여 주었다. 그것은 유화를 그리기 위한 밑그림이 아니라 독립된 회화의 영역이었다.

## 2) 휴식(박수근)

비슷한 1~2가지의 색으로 표현하여 매우 조용하고 간결하며, 쓸쓸한 느낌을 주기도 한다. 단색조로 일관된 박수근의 작품은 여러 가지 색을 사용하여 눈에 띄게 하는 자극적인 효과나 기교보다는 보는 사람을 편안하고 정겹게 하는 친근감이 느껴지는 색조를 사용하고 있다. 박수근은 나무와 아주머니, 아기 엮은 소녀, 시장과 도시의 변두리 풍경, 노인, 판잣집 등을 즐겨 그렸다.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과 풍경은 과장되지 않고 보는 이로 하여금 따듯함과 경건함마저 자아내게 한다. 박수근은 전형적인 서민상을 그린 서민의 화가로 평가받고 있다. 박수근의 그림에 등장하는 나무는 마을 어귀에 흔히 보이는 그런 나무이다. 그 형태도 고목에서 잘리고 구부러진 나무, 앙상한 가지만 남은 나무 제멋대로 자라난 나무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지만, 잎이 무성한 나무는 찾기가 어렵다. 그리고 나무의 생태나 여러 모습을 표현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화면 구성에 변

화를 주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그 결과 정적이고 단순한 소재의 리듬과 구성의 묘를 더해주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박수근의 나무에는 명암이나 색채가 절제되어 있다. 푸석하고 기름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 그래서 그림자 같다는 인상을 짙게 풍긴다. 즉 거기 있어도 혹은 없다 해도 그 누구하나 의식하지 않는 그런 나무를 그렸다. 작품의 주제들은 주변 삶의 모습을 그렸으며 주로 여인과 노동이라는 사실적인 표현 방법으로 제작했다.

박수근은 1914년 강원도 양구에서 태어났다. 여덟 살 되던 해에 농사를 짓던 아버지가 광산업에 손을 댔다가 실패하는 바람에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냈다. 어느날 우연히 책에서 프랑스의 유명한 농민화가 밀레가 그린 명작 <만종>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아 화가가 되겠다고 결심하였다. 그는 집안 사정 때문에 상급 학교에 진학할 수 없었으나 절망하지 않고 마을 주변의 산과 들로 스케치하러 다니며 열심히 수채화를 그렸다. 열아홉 살 때 마을 부근의 농가 풍경을 그린 수채화를 조선미술진람회에 출품하여 입선하였다.

1940년 아내 김복순을 만나 결혼하였으며 평양의 평안남도 도청에 취직하여 생활의 안정을 되찾았다. 박수근은 아내를 모델로 삼아 가난 속에서 열심히 사는 여인상을 그렸다. 그는 늘 자신의 삶과 가까운 곳에서 소재를 얻었으며, 가난한 서민의 생활을 통해 삶의 존엄성을 보여 주려 하였다.

#### **라. 감상 교수 학습 자료의 구체적 내용과 설문의 작성**

- 어떤 색으로 배색하여 표현한 것인가?
- 어떤 주제와 느낌을 표현한 것인가?
- 비슷한 색의 배색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 반대색의 배색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 **마. 형식과 제작 기법 결정**

두 개의 상반된 작품을 비교 감상하는 동시에 관점을 설정하여 그에 따라 분석하고 평가하는 관점 감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수업모형은 감상과 표현활동이 연계된 통합형 교수-학습 모형을 이용하여 작성하였다.

**바. 제작·완성**

자료 개발의 과정을 거쳐 완성된 지도안과 감상학습지는 다음의 <표 V-8>과 <표 V-9>와 같다.

<표 V-8> 4단원 교수 학습 과정안

단원	4. 색의 느낌		
본시 주제	작품에 나타나 있는 색의 느낌 감상하기	수업모형	통합형 교수 학습 모형
학습 목표	작품에 나타난 색의 느낌을 이야기하고 배색의 특징을 알 수 있다.		
단계	교수·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점
탐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박수근과 마티스의 작품 감상하기</li> <li>-무엇을 그렸는지 이야기하여 봅시다.</li> <li>-작품에서 느껴지는 첫인상은 어떤가요?</li> </ul>		◎사진 자료  ◎색종이, 감상학 습지 ◎색종이를 이용 하여 손쉽게 꾸미 기를 할 수 있게 한다.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색에 관해 이야기하기</li> <li>-어떤 색을 사용하였나요?</li> <li>-어떻게 배색하였나요?</li> <li>-박수근과 마티스 작품의 색의 느낌 비교하기</li> <li>-비슷한 색끼리 배색하였을 때 어떤 느낌이 드나요?</li> <li>-반대색끼리 배색하였을 때 어떤 느낌이 드나요?</li> </ul>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색종이를 다르게 배색하여 꾸미기</li> <li>-색종이를 이용하여 비슷한 색과 반대색으로 나타내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리하기</li> <li>-비슷한 색과 반대색으로 나타냈을 때의 색의 느낌</li> </ul>		

<표 V-9> 4단원 감상학습지

<p>색종이를 이용하여 비슷한 느낌과 반대색끼리 배색하여 나타내어 봅시다.</p> <p>(            )초등학교 (    )학년 (    )반 (            )</p>	
<p>&lt;비슷한 색끼리 배색하기&gt;</p>	<p>&lt;반대색끼리 배색하기&gt;</p>
<p>비슷한 색끼리 배색하였더니:</p>	<p>반대색끼리 배색하였더니:</p>

## VI. 결론 및 제언

### 1. 결론

초등학교 4학년은 감상의 기초적인 수준으로 미술 작품을 보는 것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가지며 작품을 보고 좋은 점과 재미있는 점을 찾고 작품에 대한 느낌과 생각 등의 차이에 관하여 토론해 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미술수업에 있어서 ‘감상’ 영역 지도에 대한 교사의 관심 부족과 ‘표현’ 영역의 과도한 편중, 교수학습 자료 부족 등으로 인해 감상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을 절감하고 감상지도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4학년 수준에 맞는 교수 학습 자료를 개발하고자 본 연구에 임하였다.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점으로서 충분한 작품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작품분석을 통해 작품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거치고 난 후 작품을 감상하는 중요한 관점들을 찾아내어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사가 그러한 과정을 거쳐 개발한 교수 학습 자료를 수업시간에 투입한다면 효과적인 감상수업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교수 학습 과정안을 제작하는 경우 교사가 의도하는 수업과 미술 감상의 수업 모형과 맞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이런 경우에 교사는 교수 학습 모형을 일부 단계를 생략하거나 변경하는 등 융통적으로 이용하여 효과적인 감상수업지도안을 제작하도록 해야 하겠다.

본 연구는 문헌 연구를 통해 감상에 대한 이해 및 감상지도법 그리고 교수학습 모형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그리고 4학년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4학년 미술교과서 1, 2, 3, 4단원의 감상 교수·학습과정안과 감상학습지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한 새로운 교수·학습 자료를 활용했을 때의 기대 효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과서에 제시된 감상작품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생활 주변의 미술 작품으로 관심과 흥미를 확대할 수 있다.

둘째,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제작한 교수 학습 자료를 통해 아동의 감상능력을

기르며 수업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셋째, 4학년 수준에 맞는 교수·학습 자료를 통해 감상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수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넷째, 감상 교수 학습 자료의 개발을 통해 미술수업에 있어 ‘표현’ 영역의 과도한 편중 현상을 줄이고 ‘감상’ 영역에 대한 충실한 수업을 유도할 수 있다.

## 2. 제언

첫째, 교과서와 지도서의 내용이 보장되어야 하겠다.

현행 미술교과서를 살펴보면 참고작품의 크기가 너무 작아 감상하기가 어려우며 지도서의 경우 참고작품에 대한 설명이 너무 간략하게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교과서에 참고작품의 크기가 좀 더 커야하겠으며 지도서에는 참고작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신도록 하며 작가에 대한 내용 또한 더욱 보장되도록 해야 하겠다.

둘째, 교과서를 보조할 수 있는 CD자료 개발이 필요하다.

참고작품을 교과서에서만 감상할 경우 크기가 한정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음악교과에서 전통음악 CD자료가 활용되고 있는 것처럼 미술 감상용 CD를 개발하여 감상수업이 효과를 높일 수 있게 해야 하겠다.

셋째, 감상수업에 대한 다양한 수업모형 개발이 필요하다.

초등학생 수준에 적합하고 여러 가지 감상 지도방법을 수용할 수 있는 다양한 수업모형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감상수업에 따른 수업모형이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되어야 하겠다.

넷째, 학년 수준에 맞는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가 개발되어야 하겠다.

감상교육은 초등학교 내에서도 학년별로 수준차가 크다. 학년별로 감상수준이 다르므로 감상지도도 다르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각 학년의 수준에 맞는 감상 교수 학습 자료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아동들의 학년 수준에 맞고 미술 감상에 대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교수 학습 자료 개발이 시급히 필요하다.

다섯째, 감상을 위한 단원이 추가되어야 하겠다.

감상은 학습을 통해 그 능력을 더욱 신장시킬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단원이 표현 영역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상활동이 중점이 되는 단원은 12개의 단원 중 우리나라 미술품 단원만 있다. 감상방법과 작품을 서술하기 위한 용어 습득 및 감상을 위한 표현활동 등이 구체적으로 학습될 수 있도록 감상을 위한 단원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 참 고 문 헌

- 경향신문사(편)(1974). 내가 겪은 이십세기 :백발 증언 원로와의 대화. 서울.
- 교육인적자원부(2001). 초등 학교 미술 4. 서울: 대한교과서.
- 김 정 외(편)(2002). 미술교육학원론. 서울 : 도서출판 예경.
- 김진희(2002). 초등학교 미술교육의 전문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 김향선(2004). 세계의 위대한 화가 아름다움 그림. 서울 : (주)계림닷컴.
- 김혜순(2001). 초등 미술감상 지도를 위한 수업모형 연구.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 박휘락(1999). 미술감상 교육용 <셀프 가이드>의 제작 기법에 관한 연구. 대구교육대학교 논문집. 제 34집. 195-244
- \_\_\_\_\_ (2003). 미술감상과 미술비평 교육. 서울: 시공사.
- 박우정(2007). 초등학교 미술 감상 지도를 위한 교수·학습 자료 개발 방안. 석사학위논문.
- 라은화(2006). 꽃창살의 조형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 류재만(1994). 어린이 미술 감상교육에 관한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미술교육연구회.학술논문.
- 류재만(2004). 초등미술과 교수법. 서울 : 교육과학사.
- 이경숙(2003). 초등학교 미술 감상지도 방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
- 이은적·류재만·전성수·김홍숙(2004). 재미있는 미술감상 수업. 서울 : 도서출판 예경
- 이남희(2001). 초등학교 미술교과서에 수록된 미술품의 분석과 서술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인천교육대학교.
- 이승우(1997). 현대미술의 이해와 감상. 서울 : 학문사
- 이호균(1996). 샤갈, 사랑과 꿈을 그린 화가. 길벗어린이(주)
- 인천광역시 (편)(2001). 인천 역사의 자랑, 인천.

- 임정미(2000). 소니아 들로네의 작품 연구와 현대의상에 미친 영향. 석사학위  
논문. 중앙대학교.
- 전성수·구영란·정희란·윤순중(2003). 함께 배우는 우리 미술. 도서출판 서울 :  
예경
- 한국미술교과교육학회(2003). 미술교육학. 서울 : 교육과학사
- 황희재(2001). 초등학교 미술감상 교육의 현황 조사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  
여자대학교.
- E. W. 아이스너(2003). 새로운 눈으로 보는 미술교육. 서울: 도서출판 예경.



## ABSTRACT\*

### Study on the Instructive Methods of Appreciating Art for Elementary School

Ko, Sook Kyoung

Major in Elementary Art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Yim, Choon Bae

The educational purpose of art curriculum is to have students build aesthetic attitudes, imagination, creativity and critical thoughts so that they may feel and enjoy the beauty of surrounding worlds through various art-related activities in addition to cultivating holistic humans equipped with abilities to understand, inherit and develop the art culture. In order to properly accomplish such a goal of the curriculum, three domains of art curriculum such as 'Aesthetic Experience', 'Expression', and 'Appreciation' should be carefully instructed without laying stress on any of them.

However, in the actual fields at school, it is easy to find a problem that the domain of 'Expression' is excessively put emphasis, disregarding the

---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conferred in February, 2009.

other domains such as 'Aesthetic Experience' and 'Appreciation'. In order for the instruction about appreciation to be properly conducted, it is needed to provide various teaching and learning materials fit for the appreciation objectives and the levels of students, through which not only can high-quality activities of appreciation increase students' abilities of appreciation, but have them build abilities and attitudes to perceive and react towards the beauty of objects easily found in their daily l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k effective learning methods through researches into literary and documentary records and develop teaching and learning materials mainly dealing with activities of appreciation, and the guidance plan and learning worksheets as teaching and learning materials could be developed by utilizing the reference art works in the art textbook for the 4th graders.

In order to develop teaching and learning materials, it is required to establish goals and viewpoints of appreciation instruction and verify the materials through a series of processes such as selecting art works, investigating the works and artists and drawing up specific contents fit for the goals and viewpoints. If teaching and learning materials developed through such a process can be used in class, it is anticipated to increase students' interests in the domain of 'Appreciation' while increasing the efficiency of art class. Moreover, by reducing the phenomenon of laying excessive stress on the domain of 'Expression' and inducing students to participate in class rather focusing on the domain of 'Appreciation', it is more likely to increase children's abilities of appreciation.

In order for instructions of art appreciation to be systematically conducted, it is required to carry out further researches into methods of instructing art appreciation as soon as possible and develop a variety of teaching and learning materials fit for each level of graders while supplementing the contents of art textbooks and guidance books.

